여성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2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거래고객
더멀매트릭스(주) 김태운·김주영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부평동지점 거래고객
(주)두원알앤에이 박진규 대표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좋은 직원과 오래오래 함께하고픈 대표님께

인재를 지키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고,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축.
지금, IBK기업은행에서 시작하세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이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재직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납입하여 만기 시 장기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오래오래 중소기업에게 든든하게

· 납입금 전액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적용
* 법인기업(손금), 개인기업(필요경비) 인정

◀ 기업을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7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오래오래 재직자에게 넉넉하게

· 기업지원금 + 우대금리 = 최대 4,029만원 목돈 형성 (원금 3,000만원 기준)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최대 90% 감면

◀ 재직자를 위한 IBK기업은행만의 7가지 혜택 확인하러 가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641호(2024.12.17.) 유효기간(2025.12.16.) · 가입대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외국인 가입가능)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름) · 가입채널 : 영업점 창구, i-ONE Bank(개인) · 계약기간 : 3년제, 5년제(3년제는 추후 판매 예정) · 적립금액 : 최소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로 월 1회 납입 가능, 최초 가입한 금액(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적립)가능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최고금리 연 5.0% 적용 시 예상 수취 이자액 2,287,500원(세전, 월 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60개월 가정시)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 변동 가능) · 적용이자율(24.12.17.기준, 세전) : 최고 이자율 연 5.0%(기본이자율+우대이자율), 기본이자율 : 연 3.0%(3년, 5년) · 기본이자율은 신규기업일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 기업일 이후 3년 경과 시 1년 단위로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 : 최고 연 2.0%(급여이체 연 1.0%,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연 0.5%, 카드이용 연 0.5%) · 이자 및 수익의 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만기(휴)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2025년 2월호

04 **미담 쓰담쓰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육아' 외

12 **이달의 편지**
'라디오 없인 못 살아'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더멀매트릭스(주) 김태운·김주영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두원알앤에이 박진규 대표

80 **코너 속 편지**
'내 마음속 영원한 반장' 외

111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편 가르기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5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2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쿵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미담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려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육아

주민경 | 충남 당진시 송산면

존경하는 여성시대 가족분들, 재작년 연말부터 돌쟁이들이 잘 때 조금씩 사연을 써 보낸 쌍둥이 엄마입니다. 곧 당진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여성시대를 통해 그간 동네에서 감사했던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여성시대 시그널이 흘러나오면 몸으로 리듬을 타던 아이들은 작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볼륨 소리도 알아서 조절할 만큼 훌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출할 땐 아직도 종종 유아차를 타는데요. 그날은 그런 육아용품의 도움 없이 걸어서 한 번 외출을 해보자! 호기롭게 나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쌍둥이를 차에 태우고 놀이방 인근에 주차한 후 걸어가 보려는데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앉고서고 길에서 난리가 났어요. 혼자 끙끙거리며 둘 다 안고 가야만 했지요. 그 모습을 보신 어느 건물 직원분께서 아이를 받아 안아주시며 집에 돌아갈 시간이 언제냐 그때도 도와주겠다 하시며 격려해 주셨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길에 주저앉은 쌍둥이를 보신 같은 어린이집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아이를 안아서 집 앞까지 데려다주신

적도 있어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갑자기 둘 다 아파서 슬퍼하던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원장 선생님, 담임선생님.

처음 가본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고 싶다며 땀까지 흘리며 즐겁게 어울려준 상큼한 초등학생들. 언제나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시던 회사 동료분들과 언니, 오빠, 친구들과 동생들. 주변 이웃들과 육아 동지 엄마들. 모두 출산 후 힘들었던 저를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준 정말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되어보니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양가 부모님께 새삼 더없이 큰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외출하시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꼭 저희 남매의 옷이나 먹을거리를 한두 개씩 사 오셨어요. 어렸을 땐 그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 입고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까 그 하나하나에 다 자식을 생각한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었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다른 애들이 옷 입은 걸 보면 너희도 저 옷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늘 생각해. 맛있는 걸 봐도 너희가 먼저 떠오르고."

예전에는 이 말을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을 옷만 생각하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저도 요즘엔 쌍둥이들 또래가 보이면 어떤 옷과 신발을 신었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재밌는 장난감을 보면 사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저의 식욕은 꾹 누르고 쌍둥이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게 부모님 마음이겠지요.

육아를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솔직히 저는 완연한 엄마의 모습이 되지는 못했어요. 참치액을 참기름인 줄 알고 완성된 음식에 가득 뿌리기도 하고 아기 바지 한쪽에 양다리를 넣어 입히기도 하고 앞뒤 옷을 바꿔 입히는 건 일상입니다. 늘 그런 실수를 하지만 그러면서 엄마로서의 경험을 쌓아나가며 쌍둥이와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고민이 좀 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저 없이 이 과정을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만큼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육아는 할수록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으나 매일 오전 따뜻한 여성시대를 들으며 그 온기 속에서 동행하는 기분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정든 마을을 떠나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그 소중한 시간 잘 이어 나갈게요. 우리 동네 모든 이웃분들 감사했습니다! 든든하고 멋진 우리 남편과 가족 그리고 여성시대로 인연이 된 전국의 당당이 분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천사가 준 선물

김영필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저는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선 이제 막 칠십 줄의 초보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어찌 살아온 건지 평생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보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헝클어진 채로 나이테만 헛되이 늘려가느라 가족에겐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무늬만 가장이었지요. 그런 제가 비록 다른 이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경비원 일을 시작하며 어엿한 제복을 입은 직장인이 된 것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도 거뜬히 이겨냈고 젊었을 적에는 마냥 낭만적으로만 느껴졌던 눈을 열심히 치우는 겨울입니다. 꼬박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근무가 아직 몸에 덜 익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눈뜨면 나갈 일터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지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아주 감동적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시간에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안전 통학 지도를 할 때마다 제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정성 들여 쓴 쪽지를 단팥빵에 붙여 가져와서는 초소 창문을 두드려 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705동 여자아이입니다. 한 방에서만 앉아계셔야 해서 힘드시죠? 빵을 먹고 힘내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705동 여자아이 드림.>

평소에도 가끔 입주민분들께서 이 날씨에 고생한다며 음료수나 먹거리를 초소에 놓고 가시긴 했지만 이렇게 귀여운 선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다섯 살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손녀 같은 천사에게서 뜻밖의 선물을 받고 나니 무한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부모가 어떤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부모에 그 아이 아니겠어요? 우리 손자도 이렇게 고운 인성으로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명시 소하 7단지 705동의 예쁘고 귀여운 천사야!

이 경비 할아버지가 네가 준 빵이 혹시 상해버릴까 고이 간직하지 못하고 얼른 먹어버렸지만 부디 그 고운 심성 그대로 예쁘고 바르게 자라려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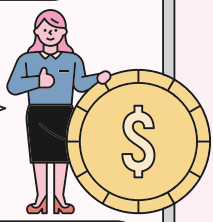
<나를 칭찬합니다>

[홍경미] 저는 양가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뵈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제 안부 전화가 양가 부모님께 일상이고 행복이 된 거 같아서 뿌듯해요.

[조상현] 저는 기타를 독학으로 배웠어요. 어린 시절, 기타가 너무 치고 싶었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중년이 되었네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늦었어도 기타에 도전한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오재흠] 저는 아침 6시에 수영장 가서 7시까지 수영 강습받고 상쾌하게 출근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박다원] 얼마 전 여성시대 사연 듣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기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걸 실천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응원의 힘을 주고 싶네요.



[김태욱] 저희 어머니는 올해 일흔한 살인데 얼마 전부터 제가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적해하시던 어머니가 컴퓨터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 뉴스도 보시고 라디오도 듣고 계신답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문자 모음입니다.

이달의 편지

12 라디오 없인 못 살아
15 습관이 무서운 이유
18 남편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1 친절한 명수 씨
26 내 이름은 이강순
29 두 분의 어머니
34 여성시대가 흐르는 카페
38 어디 건망증 대회 없나요
41 목도리를 뜨며
44 인생 그림책 만들기
47 다시 일하는 기쁨
50 나의 낚시 선생님
53 비밀번호
56 333 운동
60 스테인리스 대야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라디오 없인 못 살아

박봉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별별 일이 다 생기는 나의 삶 속에, 정말 한 치의 여유조차도 없는 이 바쁜 삶 속에 무엇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샘을 내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온몸과 시간을 일에 바쳐 얻어낸 것은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난한 삶뿐이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 위로 흐르며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그런 나날들을 버티다 어느 날 문득 나는 화장대 서랍을 무심코 열었다.

거기에는 이어폰이 있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라디오를 틀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은 그동안 모르고 살았

던 또 다른 별세계.

그 뒤로 나는 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흥겨워서 다리를 흔들흔들, 고개를 끄덕끄덕. 왜 진즉에 이 재미난 걸 모르고 살았을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난 참 행운아라는 생각을 한다.

요즘은 라디오를 듣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다. 힘들 때도 화가 나려 할 때도 제일 먼저 라디오를 찾는다. 그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라디오 볼륨을 높인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라디오.

라디오 덕분에 음악 공부도 한창 하고 있다. 좋아하면서도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음악. 우연히 다시 마주친 노래의 제목과 가수 이름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으니 조그만 수첩에 필기를 해둔다. 신청곡을 보낼 때도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최근에 이미 나간 곡은 아닌지 복습을 한 후 겹치지 않는 것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겁다. 아침부터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니 사람이 사는 데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는다.

어려서부터 동생들에게 양보, 자식이 생기고 나서는 자식들에게 양보. 이제 쉰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서야 양보 없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싶다.

일만 하면서 살아온 세월, 내게 남은 것은 여기저기 망가져 버린 몸과 잔뜩 닳아버린 힘과 열정이었다. 누구는 인생이 육십부터라지만 일찍부터 일하며 산 사람은 거기에 닿기도 전에 체력이 소모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부족한 기력을 라디오가 채워주니 참 다행이다. 나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문자메시지도 곧잘 보내고 가끔 내 문자를 읽

어주는 디제이분들의 음성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도 다 문자로 털어놓는다. 부부가 아무리 일심동체라 해도 못 하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남편 흉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보내는 것이다.

남편은 한 번쯤 궁금해했다. 무슨 문자를 그렇게 보내나 알고 싶어 하는 눈치지만 내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애써 알려고 하지 않으니 그것 하나는 남편의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나, 요즘 핫한 노래를 신청하고 선물도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딸은 깜짝 놀란다.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라디오를 듣고 문자도 많이 보내면서 라디오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각뿐이다.

마지막으로 매일 제 아침을 채워주시는 양희은 님, 김일중 님 정말 감사합니다!

Letter 02

습관이 무서운 이유

이영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체감온도 영하 6도였던 날, 평일에 쉬는 나는 아내와 찜질도 할 겸 목욕탕에 가기로 했다. 20년 넘게 찜질방 기계실에서 일했던 내가 돈을 내고 목욕탕이라니! 그땐 몰랐던 지출이 생긴 것이다.

가까운 대형 찜질방으로 가니 작년에 폐업을 했단다. 이곳도 20년 넘게 운영되었던 곳이었는데. 코로나의 여파가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염증까지 남기고 지금도 어디선가 생존해 있는 거 같아 지겹다.

다행히 10여 분쯤 차를 몰아 지하에 있긴 하지만 나름 규모가 큰 곳을 찾았다. 사실 찜질방은 건물만 다를 뿐 백화점처럼 다들 비슷한 구조이다. 여기도 처음 갔지만 낯선감이 없는 곳. 남녀로 구분된 38선과도 같은 탈의실로 아내와 이별하는데 여자들에겐 여전히 제한된 수건 2장. "더 필요하시면 매점에 얘기하세요~" 단호한 직원의 말투와

달리 남탕엔 수북이 쌓여 있는 무제한 수건과 거품 타올. 탈의실 바닥에는 인테리어처럼 쓰고 버려진 수건 몇 장이 떨어져 있다. 나이 많으신 직원이 지나면서 주섬주섬 젖은 수건과 찜질복을 수거한다. 20년 세월의 데자뷔 같다.

탈의를 하는 동안 탕 입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아저씨~ 면도기랑 때 타올 좀 주세요." 탕에 들어갈 때 사서 들어가야지 했다가 깜박하고는 알몸에 물을 다 묻히고 나서야 아차! 생각이 나서 소리치는 사람들. 혹시나 안줄까 목소리가 퉁명스러운 것까지 어디가나 비슷하다. 냉탕에서 수영하시는 분, 그나마 배영은 물 튀김이 덜해서 봐주는 추세지만 자유형은 곧 굴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직원이 목청을 높이게 만든다. "탕에서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우나에서 모래시계를 몇 번이나 돌리며 "헛둘~ 헛둘~" 가만있어도 땀나는데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나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탕에서 수영하는 사람. 양치할 때 쓰라고 비치해 둔 소금을 한 움큼 집어다 사우나에서 박박 때를 미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도 바닥에 떨어진 소금이 까칠까칠 밟혀 그다지 좋은 느낌이 아니다.

"청산~" 탕에서 신선놀이 하는 분의 노랫소리도 수십 년째 그대로인 듯 들려오고 다리도 안 아픈지 입식 샤워기에서 한 시간째 땀구멍 하나하나 씻는 듯한 사람들은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기나 살이 터지나 실험을 하나 보다.

수건 한 장으로 머리 닦고 다른 한 장으로 상체 또 다른 한 장으로 하체를 닦고, 탈의실 이동하는 내내 무슨 옥체에 머리카락이라도 묻을까 바닥에 수건을 깔고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직원도 할 수 있는 게 눈으로 하는 욕밖에 없는지 멀리서 째려보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수건을 치우곤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새벽마다 갔던 동네 작은 목욕탕. 자욱한 김 서림에 주저주저하며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는 욕조 안에서 무서워하면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 때를 불려주었다. 바가지로 물놀이하던 나에게 "다 같이 쓰는 건데 깨질라~" 하시던 동네 할아버지 목소리. "일루 와라~" 하곤 때를 밀어주시던 아버지와 내 보드라운 살에 닿던 거친 수세미의 촉감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오랜만에 한증막에서 땀을 내고 당뇨가 있어 식혜 대신 녹차와 맥반석을 먹고 평상에서 졸고 있던 어르신을 깨울 만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신발장을 닫고 나오니 인포메이션 앞 의자에서 아내가 바나나우유를 날름 먹고 있다. 당뇨임에도 빨대로 한 모금 빼어 먹고 나니 역시 목욕 후엔 이만한 게 없지 싶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들려준 여탕 이야기는 남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사람들의 오래된 습관에서 성격이 보인달까.

비대면 세월이 길었던 동안 1년에 한 번쯤은 따뜻한 욕조에서 몸을 풀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새 알게 모르게 사라진 대중목욕탕들이 아쉽다. 우리 어릴 땐 공중 예절을 배웠던 곳이 목욕탕이기도 했는데 말이다.

우리만큼이나 탕 목욕을 좋아하는 일본에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다 쓴 수건은 고이 접어두고 나온다고 한다. 수고와 감사의 표시가 그런 습관에 배어있는 거겠지. 욕조에 몸을 담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준 누군가의 헌신에 감사했던 마음을 다음에는 나도 어떻게든 표현하고 와야지 싶다.

Letter 03

남편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김문희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2023년 7월 19일. 남편의 신체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이다.

오른팔이 부러져 깁스했는데 이상하게 왼팔의 힘이 빠지고 근육이 튀었다. 한강 변을 산책하다가 느닷없이 넘어지고 팔씨름도 나에게 지고 큰아들 여자친구와 처음 만나 밥을 먹는데 숟가락질이 힘들어 음식을 흘리기도 했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병원에 많이 다녔다. 결국 작년 여름, 대학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 끝에 확진된 병명이 '근 위축성 측색 경화증' 루게릭병이다.

햇살 가득한 병실에 피곤을 풀며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들어온다. 축하한다면서 내가 낳은 아기를 보여주겠단다. 아들일지 딸일지 건강한 아기일지 궁금했다. 건강한 아기라며 번쩍 들어 보여주는

데 다른 것은 안 보이고 고추만 크게 보였다. '아들이구나.' 내심 딸을 기대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에 안심하는데 다른 아기를 들어 올리더니 또 다른 나의 아기란다. 그 아기도 고추만 크게 보인다. '이런! 아들이 둘씩이나' 좌절하는데 아기가 한 명 더 있다면서 보여준다. 역시 고추가 커다랗다. 아니 더 크다. 제일 크다.

이건 내가 임신 초기에 꾼 태몽이다. 현재 나는 아들만 둘이다.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해서 셋째도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태몽대로라면 또 아들일 것 같아 미리 포기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남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생겼다. 빨래하느라 베란다에 있으면 "여보, 어디 있어?" 하며 나를 찾는다. 소변이 마려우면 "여보,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며 나를 부른다. 샤워하고 나면 "여보, 귀에 물이 들어 갔어" 하며 찡찡거린다. 배가 고프면 "여보, 오늘 저녁은 고기 먹고 싶어" 하며 애교를 부린다. 내게는 '여보'가 '엄마'로 들린다.

15년 전쯤 이 사람과의 결혼이 후회돼서 이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결혼사진을 조각조각 잘라 모두 버렸다. 사진뿐만 아니라 예복, 한복 등 추억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큰 쓰레기봉투로 두 개나 꽉 채워 남김없이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을 추억할 물건이 없다.

결혼기념일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여러 해 동안 기념일 없이 지나갔다. 원래 남편은 내가 기념하지 않으면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결혼식을 올린 날짜도 없고 추억할 물건도 남아있지 않으니 뒤늦게 서운했을까? 나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결혼식을 한다. 남편을 소파에서 일으켜 화장실까지 데려가려면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나의 왼 손바닥 위에 약간의 힘이 남아 있는 남편의 오른손을 포개놓고 한 발씩

천천히 박자를 맞춰 걸어야 하는데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며 맞춘다. 짧은 거리지만 버진로드를 걷는 느낌이다.

어리석었던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과 화해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간다.

재작년 12월에 퇴사하고 남편과 함께하기 시작한 지 1년. 치료제도 없고 지연제도 효과가 미비해서 현대 의학으로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병이다.

어제는 워커를 짚고 걸을 수 있었지만 내일은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어제는 변기에 용변을 볼 수 있었지만 내일은 기저귀가 필요할 것이고, 어제는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내일은 죽을 먹겠지.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 침대 위의 덩치 큰 아기가 되어 버리겠지만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낸다.

아들들은 주말이면 와서 아빠를 씻기고 집안일도 도와준다. 두 아들이 든든하고 감사하다.

"여보,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인 거 알아요? 생로병사 삶의 네 가지 과정 중에서 병고의 과정을 함께 겪어주는 사람이 셋이나 있으니까요."

Letter 04

친절한 명수 씨

서시철 |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작년 10월 초 추수를 앞둔 잠시의 농한기를 틈타 이장 부부와 가성비 좋은 패키지 상품을 고르고 고른 끝에 2박3일의 제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세 번째 여행이지만 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과 기대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가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을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패키지여행은 특성상 시간적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마냥 신혼부부들처럼 들떠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교대로 사진을 찍고 있었지요. 문제는 저들끼리 사진을 찍다 보니 꼭 일행에서 한 사람씩 빠지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일행의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우두커니 바다를 쳐다

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패키지여행 초반부터 혼자 온 그 사람이 눈에 띄긴 했어요. 거의 모두가 커플티를 입고 나란히 온 연인들이거나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와서 사색을 즐기고 계신 그분께 대뜸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느냐 요청하기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저하고 있는데 저 대신 이장님이 그분께 다가가 조심스레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흔쾌히 우리의 요청을 받아 주었고 친절하게도 여기 서 보세요, 저기 서 보세요, 웃어 보세요 하며 전문가처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우리 일행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씩이나 건네며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가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않다면 우리 일행과 함께 움직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누가 봐도 처음부터 일행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한 팀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말하기 전에 사생활을 묻는다는 건 실례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평소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인 이장네 부부는 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의 이름은 김명수.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한국에 온 지 여섯 달 정도가 되었고, 아직은 싱글이며 나이는 50대 초반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지요.

이번에는 그가 우리 일행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펴 나갔고 우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 서울과의 거리, 우리 지역의 특성, 인구까지 물어본 후 그가 진지하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이장님 사는 지역에서 하고 싶네요."

우리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다.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그에게 자세한 마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긴 했어요. 우리 마을은 읍내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만일 오게 된다면 머무를 숙소와 식사 문제 등등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시골도 얼마든지 많은데 정말 우리 동네까지 오겠어?' 하며 마음을 편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추수기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일들을 까맣게 잊어가고 있을 즈음 명수 씨는 미용 도구와 간단한 옷가지가 들어있는 가방 하나를 달랑 메고 그야말로 수수한 차림새로 거짓말처럼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이방인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재능기부를 적극 추천했던 이장네 부부는 초비상이 걸려 읍내로 시장을 보러 가는 등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얼렁뚱땅 저녁상을 차려 조촐한 환영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명수 씨는 이렇게 맛난 밥은 처음이라며 공깃밥 두 그릇을 뚝딱하고 해치웠는데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풀어지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급한 대로 명수 씨는 마을회관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몇 달 전 새집을 지어 귀촌을 한 철완 씨가 본인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명수 씨는 5일 동안 머무를 예정이었습니다. 이장은 당장 내일부터 각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느라 전화 통화 씨름을 하였고 면장님에게도 명수 씨의 재능기부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날 면장님께서는 복지과 직원 두 명과 함께 박카스를 사 들고 명수 씨를 찾아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명수 씨는 그날부터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해 내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식사 후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러는 사이 5일은 훌쩍 지나더군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모두 섭섭해하며 아쉬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시 온다는 기약은 자신이 없는 듯 그저 담에 또 뵙게 되기를 바란다는 짤막한 작별 인사를 마지막으로 명수 씨는 처음 왔을 때처럼 가방 하나 달랑 메고 그렇게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쯤 미국으로 떠났을까 하고 마을 사람들 몇몇이 가끔 명수 씨를 궁금해할 뿐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명수 씨는 마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 갔어요.

그런데 명수 씨가 잘라주고 간 머리가 길어나 덥수룩해질 즈음 그는 또다시 거짓말처럼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지요. 이번엔 7일간의 일정을 잡고 왔다는데 어르신들의 방문 서비스를 끝낸 후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순번을 정해준 뒤 머리 손질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위손의 에드워드를 능가하는 솜씨라고 극찬하면서 그를 '찰스김'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들 했지만 명수 씨는 부모님이 지어 주신 '명수'란 이름이 제일 좋다며 개그맨 박명수, 가스활명수처럼 기억하기가 얼마나 좋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명수 씨는 사흘째부터 이웃 마을로 원정을 가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고 회관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전문 용어를 써가며 머리 관리 비법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 이웃 마을에서까지 그에게 샤워실이 겸비된 숙소를 제공하겠노라 러브콜이 쇄도했지만 명수 씨는 우리와의 제주도 인연을 배신하면 안 된다며 극구 사양하며 회관에서의 불편한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된 일주일이 흐르고 이번에는 명수 씨가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혹시 마음이 변하게 되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12월 25일경에 찾아뵐게요."

알고 보니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와서 6개월 이하 동안 체류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 영주권 유지 여부가 다소 어려워질 수가 있다며 연말쯤 돌아가게 되면 이번 기회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두어야 할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미국에서의 힘든 생활이 느껴졌어요. 낯선 이국에서의 정서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소외감, 그 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었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처럼 처음 우리 마을에 들어섰을 때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무척이나 겁이 나고 두려웠다는 명수 씨의 말이 그제야 새삼 떠올랐습니다.

이제껏 고독하게 살아왔던 명수 씨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데에 도전해 본 첫 번째 시도.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모두 가위손 '찰스김' 김명수 씨를 기다립니다. 친절한 명수 씨가 보고 싶습니다.

Letter 05

내 이름은 이강순

이강순 | 전북 익산시 동서로

남편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늘 바쁘고 정신없고 잘 까먹는 사람이라 선물 같은 건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 게 바로 결혼 28년 생활하면서 터득한 나만의 슬기로운 꿀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웬걸 남편이 제 이름이 들어간 도장을 사 왔더라고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선물할 생각을 했어?"

"당신, 집 계약할 때 찍은 막도장 있잖아. 그거 너무 오래되고 없어 보여서 말이야."

계약할 적에 찍었던 도장은 어찌 기억하는 건지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남편이 파온 도장을 얼른 찍어봤더니 아니, 강순의 '순'을 자기 맘대로 '순서' 할 때의 순자로 파놓은 거예요. 저는 '순수'할 때의 순 자를 쓰는데 말이지요.

하기 전에 무슨 한자를 쓰냐고 한 번 물어라도 볼 생각을 안 하나? 고맙긴 한데 어떡하나 싶기도 해서 우선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아쉽고 아깝더라고요. 요즘 어딜 둘러봐도 '도장' 이렇게 커다랗고 붉은색으로 써진 도장 가게가 잘 안 보였거든요.

틀린 한자가 박힌 걸 쓸 순 없으니 이참에 그냥 내가 새로 만들어야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옥이야, 옥!" 남편은 여전히 난생처음 사 온 옥도장을 두고 공치사를 하는데 황당해서 말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어찌하다 그 옥도장을 본 모양입니다.

"엄마, 이거 은행 놀이 해도 돼요?"

"은행 놀이? 그래~ 그거 괜찮은 것 같네."

그렇게 갑자기 고객과 은행원의 역할극이 시작되었고 아이와 번갈아 역할을 바꾸며 노는데 그간의 결혼생활 동안 겪었던 각양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초 우리는 칠면조를 키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무지한 행동이었지요. 칠면조 키우면서 생기는 각종 배설물 처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사실 너른 들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때는 무턱대고 마당 넓은 단독주택에 우리를 만들어 50마리의 칠면조 새끼들을 받아와 시작했으니까요. 당연히 잘될 리가 없었어요. 병들어 죽고 비 맞아 아파 죽고 주민들은 분뇨 냄새로 죽을 지경이다 항의를 하고 결국 신문광고를 내서 칠면조를 몽땅 사러 오겠다는 주인을 만나 처분을 하였지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찾았던 은행 의자에 앉아서 망연자실했던 일들이 생생합니다. "이강순 씨"라고 이름이 호명되는 줄도 모르고 속으로 부르던 '엄마…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 하며 눈물을 참았던 기억들이지요.

또 한 번은 아파트 상가 앞에 난 빈 미용실을 계약하면서 큰돈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처녀 적에 배웠던 미용 기술을 이용해 돈을 잘 벌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미용실을 접어야 했고 은행 문턱을 더 자주 넘나들게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세세히 기억이 날까요?

딸아이가 "엄마~ 이거 무슨 말이야? 엄마 여기" 하면서 제 이름이 한자로 새겨진 도장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한자를 읽어달라는 통에 유심히 바라본 나의 이름 이강순. 그래 순하게 인생 살아왔다고 생각했지. 순서에 맞추어서 순응했던 것 같다. 순서를 맞추었든 순수했든 다 상관없다. 끝이 좋으면 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밝아졌어요.

저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신나게 "네네~ 오늘은 이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우와 손님 부자세요? 여기 이거 떡볶이 사주세요~" 하면서 놉니다. 순간 은행 놀이에서 문구점 놀이로 바뀌었는데도 우리 딸은 어디서 배웠는지 "외상으로 해주세요" 하며 떡볶이 사 먹을 돈이 없다고 외상을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외상이라는 말은 사실 제 주변 친구들도 잘 안 쓰는 단어라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대?" 하니 영주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영주, 잘 알지요. 딸의 단짝친구 영주. 영주네 엄마가 노점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엄마도 외상을 받는가 봅니다. 그 딸에게 자연스레 학습됐을 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딸도 배웠을 테고요.

도장 하나로 참 여러 단상이 줄줄 떠올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은행 놀이, 문구점 놀이 다음으로 이어질 놀이는 또 뭐가 될까요? 그 놀이에서는 또 어떤 단어들과 추억들이 출동할지 어른 이강순이 기대를 해봅니다.

Letter 06

두 분의 어머니

박지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나는 어머니가 두 분이다. 우리 어머니와 큰어머니다. 두 분을 향한 내 마음을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게 된다면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똑같다.

내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한동네에 살고 있던 큰집 식구들이 홀로된 어머니와 어린 삼 남매를 마치 빚더미 떠안 듯 떠안게 되었다. 어머니는 마음의 병이 생겨서 간헐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부모 없이 남겨진 우리 삼 남매를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건사하셨다. 큰집에도 삼 남매가 있었고 우리 집에도 삼 남매가 있었다. 큰언니, 큰오빠, 작은오빠, 우리 언니, 나, 남동생 이렇게 여섯 형제자매를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키우셨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큰언니는 시집을 갔고, 큰오빠, 작은오빠도 고등학생이 되어 부모님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였다. 큰어머니는 어린 우리 삼 남매를 키우느라 당신 자식들 다 키워놓고서도 한참 부모 노릇을 하였다.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고 큰어머니는 우리 삼 남매의 학부모가 되었다. 운동회 때는 언제나 큰어머니가 오셨고 학교에서 부모님이 참석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큰어머니가 보호자로 나서 주었다. 내가 디스토마에 걸려 읍내 보건소에 약 타러 가야 된다고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도 큰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께서 논밭을 팔아서 수술비 하라고 했는데 논은 자식들 몫으로 남겨주려고 빚을 내어서 수술비를 마련하시고 내 돈 네 돈 따지지 않고 농사지어서 그 돈을 갚아주셨다.

큰어머니는 맏며느리로 큰살림을 척척 해냈고 음식 솜씨도 좋았다. 비록 두 집 살림이지만 한 살림이나 마찬가지였다. 저녁에는 집에 밥이 조금 남아 있으면 어머니는 남은 밥만 들고 우리들을 다 데리고 큰집으로 가서 큰어머니 밥상에서 함께 저녁밥을 먹는 날이 한 달의 보름을 넘었다. 우리는 큰집에서 밥 먹는 게 너무 좋았다. 아무도 눈칫밥을 주지 않았다. 소풍 가는 날이면 전날 밤 어머니는 큰집에 가서 큰어머니와 함께 재료를 준비해서 큰집에서 김밥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큰집에서 큰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밤이 찾아오면 잠든 동생을 업고 언니와 나는 걸어서 집으로 오곤 했다. 그때 눈에 잠이 가득한 우리를 깨워서 재촉하면 큰집 따뜻한 안방 구들목에서 얼마나 나오기가 싫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쉬는 날도 없이 당면 공장, 타일 공장, 신발 공장을 전전하였다. 주말에는 큰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셨다. 우리도 어린 나이에 딸기 농사를 도왔다. 큰어머니는 언니와 내가 그 시절 유행하던 가요를 부르면 "노래를 우찌 그리 잘하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딸기를 따면서 큰어머니와 언니, 내가 돌아가면서 한 곡씩 노래를 불렀다.

중학교 시절, 큰어머니는 밭작물을 팔러 아침마다 버스에 집채만한 보따리를 버스 짐칸에 구겨 넣었다. 학생들로 붐비는 비좁은 차에 짐까지 많이 싣는다고 기사 아저씨가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다. 큰어머니 때문에 차 시간이 지체되기 일쑤였다. 나는 그런 큰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모습에 대리만족감 같은 게 느껴졌다. 큰어머니는 기사님께 차비를 곱으로 주고 융통성 있게 처신했다. 그리고 큰어머니는 장사 수완이 좋아서 아침에 그렇게 많이 싣고 간 작물을 저녁이면 다 팔고 돌아오셨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삼 남매 옷, 신발도 사주고 우리가 먹고 싶은 과자도 사 주셨다. 딸린 우리 식구들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을 것 같다.

읍내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어머니의 신발 공장이 부도가 나서 어머니도 고향을 떠나왔다. 그때도 어머니는 식솔들을 위해서 쉴 틈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셨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온 후에도 큰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했다. 언니가 대학 시험 보러 타지방으로 기차 타고 가던 날도 언니와 동행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큰어머니였다.

내가 시집가던 날, 나는 큰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갔다. 내가 결혼하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언니 결혼 준비며 나의 결혼 준비까지 큰어머니가 다 해주셨다. 내 동생이 장가가던 날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니 대신 큰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앉으셨다. 남동생 장가보내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큰어머니는 그제야 펑펑 소리 내어 울

었다. 큰아버지가 막내인 남동생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할 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큰어머니는 고향 동네 아주머니들보다 일찍 몸이 고장 나 버렸다. 이제는 거동을 잘못하신다. 도시에 사는 언니, 오빠들이 모신다고 해도 기어이 혼자 고향에서 살고 싶단다. 밥이라도 따듯하게 드시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다. 읍내에 사는 남동생 내외가 종종 큰어머니께서 잘 계시는지 알뜰살뜰 살핀다.

어머니는 밀양 읍내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공공근로 일을 하신다.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 운동도 되고 소일거리가 있어서 삶의 활력이 생긴다고 하셨다. 한 달의 절반을 일하고 쉬는 날도 절반인데 일이 없는 날엔 어머니는 시골 큰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옛날에 큰어머니가 어머니를 보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조금 더 몸이 성한 어머니가 큰어머니를 보살핀다.

"주말에 올 때 김치통 좀 넉넉하게 챙겨오니라. 뽑아보니 배추가 많다. 많아."

큰어머니는 시집와서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김장을 해주셨다. 내가 결혼하고 20년 넘게 우리 집 김장도 해주셨다. 큰집과 엄마 집, 육 남매의 김장을 해주셨다. 작년에 큰어머니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허리 수술을 받게 되셔서 김장을 각자 하기로 했는데 김장철 다 되어가니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땅 놀리면 안 된다며 심어주었다."

김장할 때 동네 사람들이 배추도 뽑아주고 절여준다고 했단다. 이제 우리 어머니도 옛날 같지 않아서 어머니 또한 힘이 들 거라는 걸 알지만 큰어머니와 어머니의 뜻대로 염치없이 큰어머니표 김장을 받아오게 되었다. 주말에 가서 양념에 배추를 버무려서 담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 이 맛이지!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다고! 엄마, 큰 외할머니 안 계시면 우리 이제 이 맛있는 김치는 못 먹는 거야. 엄마 빨리 비법 좀 전수 받아. 아 너무 슬프다."

큰어머니 김치만 선호하는 타지방 대학생 딸에게 마지막 두 포기 남은 김치를 보내줬더니 이렇게 말했다.

점점 연로하신 두 분을 보면서 스스로 김치를 담아야 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일거리 덜어드릴 수 있어 마음은 편한데 태산처럼 느껴지던 두 분이 한없이 작아진 모습을 보니 슬프다. 너무 슬프다. 두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떤 맛난 걸 해드릴까, 무슨 좋은 걸 사드릴지 생각하는 밤이다. 두 분이 오래오래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

Letter 07

여성시대가 흐르는 카페

김현 |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길

30년 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처음 여성시대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연도 많았지만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연들은 솔직히 저한테는 먼 얘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시대 시그널 곡만으로도 기분 좋은 아침을 준비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시대는 잊혔습니다.

어느새 저도 늦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산에서 울산으로 시집오게 된 저한테 친정은 멀고 시어머니는 바쁘시고 저 혼자 독박 육아에 하루하루를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첫아이를 낳아서 그런가요? 늦게 낳아서 힘들 거라는 주변의 걱정과 왜 그렇게 애들을 끼고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지인들 말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보란 듯이 열심히 제 생활은 없이 두 살 터울의 아이들과 같이 눈뜨고 자고 숨 쉬는 것까지 같이 하며 살아온 거 같습니다.

큰애를 5살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도 5살에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만 버티자 하고 살아왔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작은애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바로 운동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몸도 날아갈 것 같고 자꾸 새어 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자유를 갖게 되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아이들 말고는 모든 게 단절된 상태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집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되나?' 뭔가가 아쉬웠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몇 년을 아이들하고만 놀다 보니 습관이 됐을 뿐 저도 어른 사람이 그리웠었나 봅니다.

카페라도 가고 싶은데 혼자 가려니 부끄럽고 집에 가서 라디오를 들으려니 아무도 없는 집이라 쓸쓸했습니다.

'카페에서 라디오를 틀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집에 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라라랄라 라라랄라 랄라라~' 바로 저는 여성시대를 찾아 틀었습니다. '어?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닌데?' 제가 들었을 때는 손숙 님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양희은 님 목소리를 듣는데 저의 20대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때의 제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꿈도 없이 그냥저냥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꾸

었던 꿈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중고등학교 때 힘들었지만 나의 미래에는 작은 카페를,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일단 뭐든 배우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틈틈이 제빵 기술도 배우고, 포크아트, 비즈아트, 홈패션, 은공예 등 그때 유행하는 공예는 다 배운 거 같습니다.

그 모든 걸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잊고 지냈는데 그날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전투적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런 카페 내가 만들자~' 생각하고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울산에 나 같은 사람 설마 없겠어? 내가 만들지 뭐~'

그렇게 단순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세월은 흘러 작은애가 중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9일 월요일이면 동네에 작은 카페주인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할 때 들었던 여성시대 시그널을 30년이 지난 지금 내 공간에서 들을 생각에 설렘만 안고 준비하는데 조언도 걱정도 주변에서 참 많이 해주시네요. 신랑은 저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지인들은 진짜 할 줄 몰랐다며 슬쩍 비친 저의 계획에 피식하고 흘려버립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있냐고 물어봅니다. 장사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남들은 문 닫는데 지금 시작해서 되겠냐고 걱정도 많이 해줍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런 걱정도 해줍니다.

그러면 전 그랬죠.

"자격증 없어도 되지만 저는 있습니다. 가죽공예도 할 수 있습니

다. 인테리어도 반셀프로 많이 절약했습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오픈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긴장됩니다. 주변 걱정에도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 괜찮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두 달 동안 반셀프 인테리어 하면서 준비한 걸 공개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리고 그냥 한때의 감정으로 이것저것 계산 없이 무모하게 덤빈 건 아닌가 하고 뒤늦게 걱정도 됩니다.

어제 꿈엔 오픈해 놓고 아무 준비가 안 돼서 난감해하는 꿈도 꾸고 코로나 때도 안 떨어진 식욕도 떨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카페 시작이 당장 내일인데 이런 마음가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부딪히는 현실들을 마주하니 자신감이 떨어지긴 하네요.

제 나이 50인데 할 수 있겠죠? 여성시대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주시면 힘내서 딴생각 없이 20대 들었던 편안함과 40대 들었던 기분 좋은 흥분을 안고 해보겠습니다.

여성시대의 응원을 받으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편지를 용기 내서 써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이라 이런 부탁 해도 되나 싶지만 어쨌든 저를 움직이게 만든 여성시대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억지도 살짝 부려봅니다.

Letter 08

어디 건망증 대회 없나요

전해숙 |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40년 차 주부입니다. 주부에게 가장 큰 겨울 준비는 김장이겠지요. 어김없이 김장철은 다가왔고 11월 말에 절임배추 40kg를 사서 김장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결혼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자매마저 없어 결혼 후 김장은 줄곧 남편과 저, 두 사람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이란 것이 참 희한합니다. 어떤 요리든 40년을 했으면 달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재료인데도 맛 또한 해마다 다른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정성을 켜켜로 넣어서인지 두 아들 녀석은 어려서부터 김치를 잘 먹었습니다. 빵 먹을 때도 찾을 정도여서 엄마를 뿌듯하게 해주곤 했지요.

이번에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있는 유명 셰프의 레시피까지 참

조하며 정성을 더 들였습니다. 처음으로 황석어젓갈도 넣어 새로운 맛에 대한 기대까지 잔뜩 품게 되었습니다. 생굴을 넣어 버무린 겉절이가 입에 딱 맞아 숙성되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예감도 해주었지요.

김장을 하지 않는 이웃에게 한 통 건네고 나니 마음도 따스해지고 곳간 아닌 김치냉장고 부자가 되어 김장 피로가 다 날아갔습니다.

저에겐 절친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자매가 되어 매일 사소한 일까지 공유합니다. 친구는 대구에서 서울 딸네로 오가는 길에 이곳 이천에 들러 식재료도 건네주고 식사도 함께하곤 합니다. 친구도 지난주에 김장을 했는데 딸에게 김치를 갖다주러 갔다가 다음 날 내려가는 길에 들르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손주들 작아진 옷을 더 어린 저희 손자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 내외를 위해 급히 식당부터 예약하면서 '맛보기 김치 한쪽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따 나올 때 김장한 거 한 쪽만 갖고 온내이. 나도 급히 한 쪽 꺼내 간대이. 우리 물물교환해서 품평회 해보재이."

"와~ 우린 어쩔 수 없는 찰떡궁합 베프 맞네. 나도 그 생각했거든."

'물물교환'이라는 말에 우린 소녀처럼 깔깔댔습니다. 서둘러 김치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냉기가 없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열었는데 아니 벌써 익은 김치 냄새가 솔솔 나지 않겠습니까? 헉!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제야 김치냉장고의 전원을 켜지 않은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쪽은 김치냉장고로 한쪽은 채소와 과일 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 김치 보관 업무가 끝나면 그쪽 전원을 꺼두고 김장 전날 청소하고 김장하는 날 다시 켜는데 글쎄 그 중요한 마지막 임무를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그사이 열흘이나 상온에 있었으니 모두 익어버릴 수밖에요. 그나

마 다행인 것은 김치냉장고가 베란다에 있고 제가 생김치보다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익혀 먹기 위해 한 통씩 꺼내 놓았다가 다시 집어넣기까지 하니까요.

"오늘 네가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만나자마자 목소리 높이는 저를 보며 친구 내외는 놀라 눈이 똥그래집니다. 친구가 오지 않았으면 겉절이 다 먹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을 걸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대구까지 비행기라도 태워서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쩐지~ 내가 꼭 왔다 가고 싶더라."

익은 김치와 생김치를 물물교환하며 자꾸만 늘어가는 건망증 사고 타령을 했습니다.

다음날 김치 한 통을 준 지인에게 또 허탈한 마음을 늘어놓았더니 친구보다 더 놀라며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반가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이 익은 김치를 좋아하니 자신에게 줬던 김치 절반과 물물교환하자고요. 세상에 물물교환이란 말이 이렇게 재미있게 쓰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익은 김치를 덤으로 더 얹어 교환하며 우리는 또 한 번 깔깔 웃었습니다.

해마다 김장하고 나면 "전원 켰냐?"는 체크까지 해줘야겠다며 오늘도 친구는 놀립니다.

곰국 끓이다 외출해 불날 뻔했다는 건망증은 들어봤지만 1년 김장농사 망친 건망증은 들어보셨나요? 전국의 주부 여러분! 김치냉장고에 전원 켜셨나요? 어디, 건망증 대회 없나요?

Letter 09

목도리를 뜨며

강세환 | 서울 금천구 가산로

나는 62세 할배인데 털실로 손녀의 목도리를 떴다. "남자가 무슨 손뜨개질이야?"라고 흉을 볼 수 있을 텐데 요즘 털실 한 타래에 보통 7천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이니 실값은 그렇다 해도 공임이 다섯 배는 될 듯하니 정성이 절반은 넘을 것이다.

사실 우리 어릴 적엔 뜨개질한 옷이 대세였다. 5~60년 전 이수교에는 '505 아리랑 모사'라는 털실 공장이 있었다. 빨간 내복도 사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그 공장에 가서 자투리 털실을 한 함지씩 머리에 이고 왔는데 사 온 건지 주워 온 것인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우리 또래 아이들은 우르르 사당사거리 근처로 사냥을 나갔다. 동물 사냥? 그건 아니다. 미군 부대 쓰레기 사냥이다. 거기에 가면 컬러로 인쇄된 얇은 마블 만화책도 버려져 있고 귀한 배터리를 주우면

그걸 부수어서 그 안에 있는 흑심으로 벽에 낙서를 하곤 했다.

엄마는 털실을 이어 붙여 누나의 내복을 뜨셨다. 사실 내복인지 실내복인지 외출복인지 구별도 없다. 그냥 입고 다니면 외출복이고 입고 자면 잠옷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색의 자투리 실을 이어 뜬 뜨개옷이라 자연스레 무늬가 나온다. 그래서 누나 별명이 동네에서는 '얼룩말'이었다.

눈 내리는 밤 "메밀묵 찹쌀떡 사세요~"라는 고학생의 목소리가 들리면 술 취한 아빠는 고학생이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떨이로 다 사가지고 오신다. 김장김치를 썰어 물기를 짠 뒤 양념해 메밀묵과 버무려 할아버지 술안주로 내놓으면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매울까봐 엄두를 못 내고 찹쌀떡으로 만족했다.

작아서 못 입는 털실 옷은 실을 풀어서 연탄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뚜껑 자리로 실을 넣어 물 따르는 곳으로 실을 빼내면 스팀을 쐰 쭈그러진 실이 새 실처럼 곧게 펴진다. 그럼 엄마는 놀러 나간 누나를 대신해 나 보고 그 털실을 정리하라신다.

그럼 내 양손에 털실을 이리저리 받아 타래를 만들고 엄마는 그걸 다시 공처럼 둥글게 감아 털실공을 만드신다. 낮에는 무슨 일이든 일을 하고 밤에 엄마는 석유 등불인 호야 불빛 아래서 한 코 한 코 내 스웨터를 뜨시는데 일어나 보면 어느새 내 스웨터가 머리맡에 놓여 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땅따먹기 등 돈 안 들어가는 놀이를 하는 또래 아이들은 하나 같이 다 털실로 뜬 스웨터를 입고 나왔다. 지금은 비싸서 잘 못 사 입는 털실 옷이 내 유년 시절에는 기성복을 사 입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의 일상복이었다.

손녀가 와서 내 손으로 뜬 목도리를 주니 "할아버지, 이런 목도리

는 나도 뜰 수 있어!" 하며 자기 목도리를 보여준다. 그 목도리는 털실 굵기가 굵다가 가늘다가 엉망인데 요즘은 이런 실이 대세란다.

우리 손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양털이 들어간 외투를 입고 아주 얇은 내복만 입은 채 거실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다가 군것질을 한다.

우리 때는 방에 웃풍이 심해 자리끼를 놓으면 다음 날 아침 다 얼어버리곤 했다. 참으로 뜨듯하고 풍요롭게 사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을 사는 아이들이 때론 부럽다.

Letter 10

인생 그림책 만들기

임성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는 운전을 25년째 하면서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늘 MBC 라디오를 친구 삼아 웃으며 때로는 울며 감동을 함께하는 여성시대 찐찐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여성시대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면서 단어 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울림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절친 부부를 소개하고 자랑 좀 하려고 이렇게 여성시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 친구 부부는 동갑내기로 올해 59살입니다. 친구 부부는 몇 년 전 충남 서천군 시초면으로 귀촌하여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철수는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여자친구 영윤이는 안경을 다루는 전

문 분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촌을 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니 지역 주민들과 대면할 일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지역 주민과 지역을 위해 도움을 줄지 고민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철수는 지역의 숨겨진 곳을 찾아 영상을 만들고 동네 어르신을 모델로 다큐를 제작하여 너튜브에 올려 지역을 홍보하는 일에 힘썼고, 영윤이는 서천군 교육부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 마을 학교 프로그램'에 매니저로 일하며 어르신들께 동화책을 읽어드리고 한글도 가르쳐드렸답니다.

그러던 중에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림작가이신 김환영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을 인생 그림책으로 만들기로 하였답니다.

처음엔 살아오면서 글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림 한 번 그려본 적 없는 어르신들께서 매우 힘들어하셨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그 깊숙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셔서 진행에 어려움도 좀 있었다는군요. 한 분 한 분 삶을 이야기하실 때 옆에서 듣고 계시던 분들이 "그래~ 그랬었지~" 서로를 위로하고, "나도 그랬어~" 하며 맞장구칠 때 어르신들 눈엔 눈물이 글썽였다 합니다.

모든 경비는 서천군의 행정복지국에서 도움을 주셨고 작년 9월 첫 출판을 하고 출판기념회도 가졌답니다. 책을 내신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출판기념회가 진행되었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이 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의 가족과 끌어안고 우시는 바람에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있었던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인생 그림책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영상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상은 영윤이가 그동안 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1분 남짓한 영상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제 친구 부부 철수랑 영윤이 자랑할만하지요? 두 친구는 66년생 동갑내기로 음악 밴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전 남성시대에 취미로 '뮤직타임'이란 말띠 동갑내기 음악 밴드에서 디스크자키를 한다고 글을 올린 장본인입니다. 저는 1년도 안 된 풋내기지만 친구 철수와 영윤이는 오래된 완전 프로급 디스크자키입니다.

철수야, 영윤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Letter 11

다시 일하는 기쁨

이연미 |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저는 '대한민국의 숨' 울진군에 이사 와 울진 군민으로 2년째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2022년 산불로 울진의 푸르른 숲속 울창한 나무들은 잿더미가 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숲을 가꾸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3초가 걸린다고 하지요. 숲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울진군과 울진 주민들은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금강송으로 유명하지만 다채로운 관광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왕피천 공원 내의 안전체험관, 곤충박물관, 식물원, 왕피천 케이블카,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후포 스카이워크, 금강송 테마전시 에코리움, 통고산 자연휴양림, 금강송 나무숲 길 등 수많은 체험과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울진군

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왕피천 유역 생태 환경보전 지역인 금강송면에 살고 있고 어느덧 딸아이는 엄마의 손길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로 성장했습니다. 9살 딸이 하루는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한 곳에서 일해 봐."

딸의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민물고기생태체험관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5년 경력 단절의 벽을 깨고 경북 물고기연구센터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어 기뻤고 '아직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생태체험관 매표소 업무와 고객 안내를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 어르신, 나들이 나온 가족분, 연인 등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하고 나오시는 고객분들이 "즐거웠어요, 친절한 안내 고마워요, 신기하고 처음 보는 물고기가 많네요!" 하고 인사를 해주시면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손님분들을 응대하는 업무라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상냥한 말을 하게 되어 마음과 생각이 매일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생태체험관에는 얼룩새코미꾸리, 종어, 산천어, 연어, 납자루, 징거미새우, 붉은귀거북이, 철갑상어 같은 각종 민물어류와 외래어종 그리고 재롱둥이 수달도 있습니다. 특히 붕어와 잉엇과의 어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료를 줄까 싶어서 따라오는 습성이 있다 보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은 산란을 위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포획하는 일과 산천어 채란 업무가 맞물려 직원들이 힘들고 바쁜 시기인데도 직원들이 저의 직장 생활이 낯설지 않도록 미소로 인사해 주십니다.

벌써 근무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 매표소에서 업무를 배울 때는 입장권 출력과 손님 응대에 많이 떨렸고 낯설었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은 전문가처럼 능숙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손님맞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랜 전업주부의 시간을 깨고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 자존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삶의 기쁨을 찾게 되어 좋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지만 혹시 가족 나들이나 학교 체험 현장, 어르신 관광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어딜 갈까? 고민 중이시라면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의 생태체험관을 방문해 주세요. 제가 다정한 미소로 반갑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12

나의 낚시 선생님

여연구 | 경남 거제시 옥포로

저는 정년퇴직 후 복잡한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거제도에서 4년째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거제에 딱히 연고는 없지만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몇 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고 외딴섬처럼 한적하지도 도회지처럼 복잡하지도 않은 거제가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안식처로 자리 잡더군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서 거제에 내려오니 하루가 이리 길었나 싶을 정도로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취미생활이 낚시였어요. 평소 낚시에 관심이 많았고 차로 십분만 가면 굳이 배를 타지 않아도 낚시를 할 수 있는 포구며 방파제가 즐비한 곳이 거제입니다. 저는 그중 집에서 가까운 지세포 방파제를 자주 찾았어요. 느지막이 아점을 먹고 낚싯대를 챙겨 출근하듯이 지세포 방파제로 갑니다.

그렇게 낚시를 시작한지 보름쯤 지났을까요? 언제부턴가 팔순은

훨씬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저와 비슷한 시간에 혼자서 가끔은 친구분과 낚시하시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평일 낮이라 근처에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며칠 지나서는 자연스레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여쭙는 사이가 되었지요.

"서울 양반이 거제에 혼자 내려와 살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네."

어르신은 혼자 타지살이하는 제가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셨나 봅니다. 어르신께선 조선소에 삼십 년 가까이 다니다 오래전 작은 사고를 당하셔서 조선소를 그만두고 할머님과 함께 근처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르신이 걸으실 때 오른쪽 다리가 약간 불편해 보이셨어요.

어르신은 저의 낚시 스승님이었습니다. 제가 꽝을 치고 있는 날에도 어르신은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전갱이, 말쥐치, 용치놀래미, 벵에돔, 고등어, 볼락, 배도라치 등을 쑥쑥 낚아 올리셨지요. "서울양반, 물고기 가져가서 맛있게 해먹세. 나는 너무 많이 잡았구먼." 하시면서 가끔 잡은 물고기를 나눠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할머님이 찐 감자, 찐 옥수수 등 간식거리를 가져와서 제게 나눠주기도 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어르신에게 배운 제 낚시 실력도 일취월장하니 어르신께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시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날에 담가놨던 어망에 운 좋게도 돌문어 한 마리가 떡하니 잡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어르신과 저는 절로 동시에 환호성을 터뜨렸지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울 할멈이 이도 편찮으면서 문어숙회를 좋아하는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간의 고마움에 보답할 기회다 싶어 "어르신~ 괜찮으시면 어르신이 잡으셨다 하고 문어 가져다 할머니 드리실래요?" 여쭈었고, 어르신께서는 "그래도 되겠나? 울 할멈이 참 좋아하겠어!" 하시며 문어를 가져가셨습니다.

어르신과는 거의 매일 낚시터에 출근 도장을 찍었지요. 헌데 어느 날부터 어르신이 방파제 낚시터에 안 나타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되던 차 가끔 같이 낚시하시던 어르신 친구분께 안부를 여쭈어보니 할머님께서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엊그제 병원 입원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뜻밖의 소식에 매우 놀랐고 몇 년 전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장례 마지막 날이라는 친구분의 말씀에 저는 낚시를 하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보내다 저녁 무렵에 모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 손을 잡고 "자네가 웬일인가?"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부산에서 횟집 하는 큰아들과 창원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둘째 아들에게 "서울서 내려오신 아버지 낚시 제자시다. 인사드려라" 하시며 인사시켜 주셨습니다.

"할멈이 자네가 준 문어를 맛있게 먹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네. 내가 잡았다고 하니까 세상 잘했다고 환히 웃었는데 그게 마지막 할멈 환한 웃음이 되어버렸네."

어르신께선 당분간은 앞으로 부산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셨다면서 "낼 우리 집에 잠깐 들러. 내가 쓰던 낚싯대 줄 테니. 큰아들이 환갑선물로 사준 비싼 어복 낚싯대일세. 난 이젠 낚시할 일이 없을 듯하니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네." 하셨습니다. 어르신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장례식장을 나오며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큰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하다가 이내 흐릿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어르신이 물려주신 낚싯대로 큰 물고기를 잡아 사진으로 보내드리면 어르신께서는 당신께서 잡으신 것마냥 무척 기뻐하신답니다. 어르신, 아니 스승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Letter 13

비밀번호

조민희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2년 전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 와 보니 이전 아파트와 같은 이름의 아파트지만 같은 듯 다른 상황에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그중 하나가 출입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인 RFID 방식이었다.

RFID 방식은 교통카드 같은 일종의 '전자태그 무선인식' 방식으로 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의 무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되어 1개월 동안 내가 버린 양만큼의 비용을 내는 것이다. 매우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분리수거장도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서 좋았다.

처음에 카드키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비밀번호로 이용하거나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내가 버리는 곳에는 기기가 두 대 있는데 나는 한 기기에만 비밀번호를 입력해 놓고 사용했다. 그런데 내 비밀번호를 입력한 기기가 가득 차서 뚜껑이 열리지 않아 버

리러 갔다가 되돌아온 날이 있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옆에 있는 다른 기기에도 입력해 놓아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여하튼 내 일상 속 비밀번호 목록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아파트에서는 3번의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야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먼저 아파트 외부에서 들어올 때 사용하는 '아파트 출입 비밀번호'가 있다. 다음으로는 '거주하는 동 출입 비밀번호'가 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집 현관 비밀번호도 있다. 이 비밀번호가 각기 다 다른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기의 비밀번호까지 추가된 것이다.

거주한 지 2년쯤 되니 습관적으로 패턴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가끔 실수도 한다. 최근에 눈이 많이 내려 놀이터에 아이들이 북적인 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수거기로 갔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시도했지만 또 틀렸다. 세 번째 시도하려니 갑자기 머릿속 비밀번호들이 막 뒤섞여 암담해졌다. 생각을 쥐어짜내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 짜증이 살짝 나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든 다른 주민이 서 계셨다. 나는 민망한 마음에 웃으며 "죄송해요. 먼저 하세요. 비번이 자꾸 틀리네요" 하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카드키로 기기를 사용하고 가셨다.

그분이 가신 후 다시 기기 앞에 섰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 새삼스럽게 벽면에 붙어 있는 사용법을 차근차근 읽으며 신중하게 입력했다. 이번에는 다행히 성공했다.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나니 민망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며 조금 전 상황이 계속 떠올랐다.

-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눌렀던 것일까?

-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 앞에 분처럼 카드를 가지고 다닐까?

카드 분실 염려도 커서 나는 비밀번호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이 선택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다른 일도 떠오른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러 갔을 때 카드를 출입구에 대도 열리지 않아 관리실 직원에게 문제를 설명하며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카드를 출입문에 댔는데 열리지 않자 그는 그제야 카드를 살펴보더니 이러셨다.

"이건 음식물쓰레기용 카드에요."

나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실소가 터졌는데 카드 크기가 같고 카드에 어떤 용도인지 따로 글이 적히지 않아 당연히 출입용이라 생각했다.

실수가 반복될수록 비밀번호와 카드키 사용이 점점 부담스럽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이 점이 생활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수많은 사이트와 앱들의 비밀번호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다.

모든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은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설정하다 보면 여지없이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비밀번호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조차 비용을 내야 하고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간혹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저장한 비번을 기억해 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비밀번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 것 등 편리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현대인의 이 불편함은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Letter 14

333 운동

이수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년 5월 어느 날이었어요. 다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과 손에 힘이 없어서 잡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밥숟가락 들기도 불편했어요. 싱크대 상부장에서 그릇을 꺼내려는데 팔이 올라가지도 않을뿐더러 참기 힘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말리는 일도 어려웠어요. 병원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저 "악! 아야!" 비명이 나왔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서 팔을 뒤로 하기도 힘들고 허리선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도 아팠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우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힘줄이 끊어진 거 같다며 CT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팔을 벨트로 고정하고 숨도 살살 작게 쉬라고 하더군요. 너무 크게 쉬면 어깨가 움직이고 제대로 안 찍힐 수 있다고요. CT를 찍는 동안 너

무 힘들었습니다. 숨을 살살 쉬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CT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또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힘줄이 끊어졌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니었고 '동결견'이었습니다.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잘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약은 2개월 치 처방해 드릴게요. 하루 3번 3가지 운동을 하고 3번 약을 먹을 겁니다. 물론 밥도 3번 먹어야겠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개월 치료하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쭸더니 "그건 환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열심히 하면 좋아질 것이니 하루도 빠짐없이 하세요. 목욕탕에 가서 어깨를 따뜻하게 풀어주고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목욕탕 가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집에서 찜질팩으로 어깨를 따뜻하게 찜질한 후 운동을 해주세요. 더 효과적입니다. 자, 우선 어깨에 주사부터 맞고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깨에 주사를 맞는다니 너무 무서웠어요. 엉덩이나 팔에 예방 접종 주사는 맞아봤어도 어깨 주사는 처음이라 엄청나게 긴장되더군요.

"긴장 푸세요. 괜찮습니다. 맞을만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주삿바늘을 제 어깨에 찔렀습니다. 따끔하면서 뻐근했어요. 다음은 물리치료실에서 운동을 배웠습니다. 총 3가지 동작을 가르쳐주는데 팔이 너무 아팠어요. 1번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올려 양손을 맞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책상에 기대어 팔 사이로 머리를 내리면서 어깨를 아래로 누른 채 10초 유지. 이걸 20회 반복하는 운동이었어요. 어깨가 아프니 조금만 눌러도 아! 아! 신

음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2번 운동은 벽에 아픈 팔의 팔꿈치와 손바닥을 붙이고 같은 쪽 다리를 앞으로 무릎을 살짝 굽히며 팔을 지그시 눌러주기를 10초 유지. 15회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3번 운동은 선 자세에서 열중쉬어를 취하고, 정상 팔로 아픈 팔의 손을 잡아 등을 따라 들어 올려주는 것이었어요. 으윽! 으악! 하면서 10초 유지. 15회 반복합니다.

아파요~ 할 때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아프니까 해야죠~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하셨지만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중에서도 3번 운동이 가장 아팠지요. 그래도 그날부터 저는 하루 3번 찜질을 하고 운동 동작 3가지를 배운 대로 그림을 보며 따라 했습니다.

평소 아프기 전에는 팔을 뒤로해서 브라 끈이 있는 등 중간까지 팔이 자유자재로 올라갔었는데 아프기 시작해서는 허리선 위로 팔을 끌어올리려면 비명이 질러졌어요. 그렇지만 통증에서 벗어나 팔을 사용하려면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평소 아침을 먹지 않고 아점을 먹는 편이었는데 약을 먹으려니 아침을 먹어야만 했고 찜질하고 3가지 운동을 열심히 이를 악물고 신음 소리를 삼키며 부득부득 해냈습니다. 안 먹던 아침밥을 먹는 것부터 부담스러웠지만 하루 세끼를 챙겨 먹고 약 먹고 찜질팩을 데워 찜질하고 3가지 운동을 하니, 휴~ 하루가 너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5월 말부터 그렇게 재활 운동을 시작했는데 6월이 되면서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찜질할 때마다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선풍기를 켜고 해도 더웠습니다.

2개월을 그렇게 운동하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팔을 올려 만세 해보세요~ 뒤로 해보세요~" 하더니 "열심히 하셨네요.

2개월 치 약을 더 처방해 드릴 테니까 좀 더 노력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땀띠 나고 힘드니 "찜질만 안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힘들겠지만 그래도 찜질을 먼저 해줘야 어깨가 운동을 받아들여서 더 효과적입니다"라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5월 말에 시작해서 9월까지 그 더운 여름 에어컨을 켜고 찜질하고 운동을 하고 온몸에 땀띠가 돋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팔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효과가 있으니 땀띠가 따갑고 가려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통증에서 벗어나서 만세 자세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만세 자세는커녕 팔을 직각으로 올리지도 못했는데 4개월 치 약을 먹고 그 더운 여름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 저는 이제 만세 자세로 팔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도 그 3가지 운동 동작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어깨가 또 굳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동결견, 그거 한번 아파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먹던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고 24년 그 폭염에 찜질할 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죠.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성실한 환자라고요. 이렇게 성실한 환자 드물다면서 잘했다고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해서 다시는 동결견으로 병원 올 일은 없게 하라고 하셨지요.

24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맞서 싸우며 저는 이겨냈습니다. 희은 언니, 일중 씨~ 저 잘했죠? 아침에는 여성시대 들으며 운동했고요. 점심에도 저녁에도 라디오 들으며 운동했습니다. MBC 라디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저에게 힘이 되어준 여성시대, 감사합니다.

Letter 15

스테인리스 대야

신꽃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그릇을 파는 곳에서 걸음이 멈추었다. 신혼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스테인리스 대야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잠시 사고 싶은 물건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 부부는 대야를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 망설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 말이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나 또한 스테인리스 대야를 갖고 싶으면서 맘 놓고 장만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고무대야에 김치를 치대면서 얼른 대야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았다. 스테인리스 대야에 김치를 치대면 더 깔끔한 맛이 날 것만 같았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는 그릇 가게를 지나다 가게 앞에 놓인 스테인리스 대야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나도 저 대야가 갖고 싶어서…."

그러자 딸아이가 내 손에 들린 지갑을 확 빼앗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지갑에 든 돈을 확인하고서는 뚜벅뚜벅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눈 깜박할 사이에 일어난 일. 나는 너무 놀라 서둘러 아이를 따라갔는데 딸은 가게 주인에게 "이거, 대야 얼마에요?" 하고 묻고 있었다.

"응, 저거는 이만 오천 원!" 돌아오는 대답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무 비싸다며 사지 말자고 한사코 말렸다.

"돈이 있을 때 사요. 지금 돈이 없으면 몰라도 그렇게 사고 싶은데 왜 안 사?"

"너무 비싸잖아. 이만 원이면 몰라도. 안 사도 돼. 그냥 가자, 응?"

"이만 원이나 이만 오천 원이나 뭔 차이라고. 아저씨, 이거 하나 주세요."

딸은 결국 대야 값을 치르고 나더니 그 큰 대야를 들고 앞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때 돈이 얼마나 아깝던지 딸아이가 저지른 행동이 못마땅하기만 했다. 그런데 막상 대야를 집에 들여놓고 나니 뭔가 살림살이가 빛나 보였다. 겉절이 할 때나 파김치를 담을 때 스테인리스 대야를 놓고 담으면 왠지 맛이 배로 좋아지는 것 같았고 기분이 한껏 좋아졌다.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그 대야는 우리 집 살림살이를 빛내고 있다. 아주 멀쩡하게 여전히 새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야를 보면 그때 그날 딸아이가 보여준 결단력이 떠올라 웃음이 나온다.

다시 오늘 마트에 들러 주차장으로 가려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보았던 그 신혼부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스테인리스 대야를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다가가서 "하나 장만하셔요. 우리 딸 덕분에 저도 20년 전에 샀는데 오래 사용해서 참 좋아요" 하며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

돈이 아까워 쓰지 못해도 그 돈은 언젠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낀 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 사고 싶은 것도 적당히 장만해야 즐겁고 후회도 없고 한도 없더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고에 잘 놓여있는 대야를 한 번 찾아 꺼내보았다. 쨍하게 빛나는 그것을 보니 "엄마! 제발~ 돈 아까워 벌벌 떨지 말고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 하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달의 손편지

윤서가 김장한 날

황윤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안녕하세요. 여성시대를 2번째 도전하는 4학년 곧 5학년이 될 여학생입니다. 전 오늘 할머니를 도와서 김장한게 너무 좋은 추억 인것 같아서 여성시대에 또 글을 써봅니다.

작년에도 김장하는데 참석 해봤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새벽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께선 분주하게 움직 이시며 바쁘시다.

북어껍질, 굵은멸치, 두꺼운 다시마 말린것 커다란 솥에 넣고 한참동안 끓이신다. 육수를 내기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다.

둥글둥글한 감자를 강판에 쓱쓱 갈아서 풀을 끓이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면 편하실텐데 그럼 입자가 없어서 맛이 없다고 힘든걸 참고 마늘도 콩콩 찧어서 꼭 쓰신다.

오전중에 하실줄 알고 친구들과 약속도 취소 했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마니 걸렸다.

생각보다 할머니께서 점심을 든든히 먹고 시작하지고 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신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수육에 미리 한 포기 버무린 김장김치에 싸먹는 수육맛은 너무 맛있었다.

에너지 충전을 100프로 하고 고추가루가 물어도 티가 않나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할머니가 직접 개발한 앞치마 커다란 비닐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머리를 쑥 넣으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물앞치마 띴다.

준비하신 마늘, 잔파, 갓, 새우젓갈, 맑은 멸치젓갈을 미리 불려놓은 고추가루에 넣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골고루 섞어주시면서 배추잎 한 장한 장 넘기면서 골고루 바르기만 하면 된다시며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다.

할머니께선 쉽게 하시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쪼그리고 앉았다 양반다리를 했다 한쪽다리를 폈다

생 몸살이 날 지경이었지만 옆에서 묵묵히 찬찬히 잘하는 오빠가 살짝 부럽기도 했다 할머니께선 편한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영 자세가 나오질 않고 솔직히 힘들었다.
첨가한 양념이 매워서 후후하고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나면서도 자꾸 입으로 들어갔다.
잘한다고 칭찬에 힘을 얻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듯 했다. 늘 할머니께선 혼자 몇시간씩 하셨다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도 꾹참고 끝까지 했다. 오빠랑, 나랑, 할머니랑 셋이서 하니 그래도 빨리 끝났다.
순간 이런말이 떠올랐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생각이요.
양념이 모자랄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딱 맞았다.
모자라면 백 김치 하면되지 뭔걱정 우리 할머니 말씀이다.
비닐을 깔고 했는데 양념이 여기저기 튀어서 난리도 아니였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5학년이 되니까요,
할머니 집 김장하는 날은 할머니 여동생 그러니까 내가 이모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도와 주러 오신다,
회사를 다니시니까 마치고 오시는데 이모 할머니 힘들까봐

오시기 전에 김장을 끝냈다.
언니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보였다.
금방담은 김치에 수육을 넣고 크게 한쌈 먹은그맛은 너무 맛있었다.
김장하는 날엔 수육을 꼭 먹어야 되는건가요?
내년엔 더 잘할수 있을것 같다.
어른들 께서 보시기엔 별일 아닌것 같지만 전 뭔가 큰일을 한것 같아 어깨가 으쓱 올라간다.
자신 감 뿜뿜 어때요? 저 잘하죠죠? 칭찬해 주세요.
추신: 감자를 갈아서 끓여 넣으면 김치가 아삭하니 맛있다는 할머니 말씀 참고하세요!
아 맞다 감자가 있을때 감자전 꼭 해드셔 보세요!
짱 맛있어요! (저 기억 하시죠?)

여성시대 사진방

[1110] 양산 웅상에 평균연령 50대 이상 런린이 매주 일요일 아침 운동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7611] 2년 만에 제주도 친정 와서 언니 집 한라봉 수확 딸들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성훈농장 파이팅.

[2928] 밖은 추운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파릇파릇 깻잎 땁니다. 겨울인데 혼자 봄처럼 초록초록 너무 예쁘죠!

[6218] 바깥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 아들과 저는 포도 출하 작업하고 있어요. 여성시대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155] 짜잔! 1차 꽃 경매시장 알바 끝내고 2차 출근길에 은행에 들러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의
여성시대 가족 오윤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아침마다 중고딩 아들 둘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10분만을 외칩니다.

그렇게 10분 후 깨우러 가면 어김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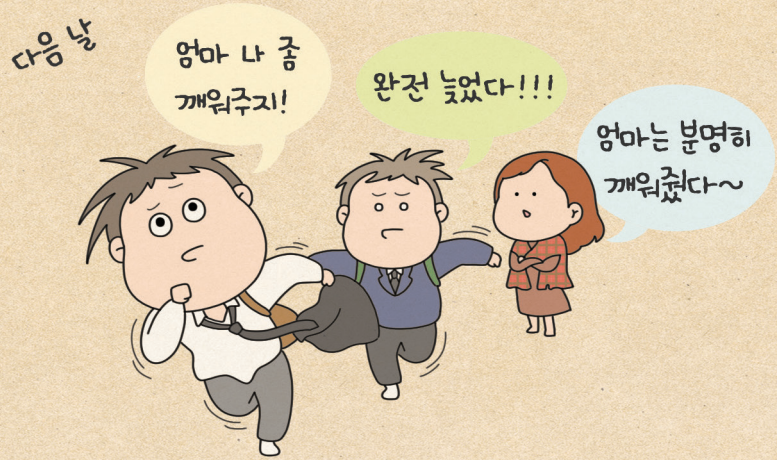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청하는 아들들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그래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잠이 많은 나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최대한 참고 또 참으며 10분 후 깨우러 가면

지도 양심은 있는지 이번엔 5분만을 외치는 아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혹여나 지각할까 봐 마음이 약해져 놓지 못한 건 저였어요.



아침에 난리 법석을 떨고, 멋지게 지각을 한 후로
우리 아들들 한 번만 깨우면 일어나게 되었네요.

아이들도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해가며 성장해감을 느낍니다.
모닝콜 해방이다!

콜라겐 마스크팩의 원조, 더멀매트릭스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거래고객

더멀매트릭스(주) 김태운·김주영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생체 소재 전문가가 화장품을 만들면? 뭔가 특별함이 있다. 생체 소재 연구원이 개발한 더멀매트릭스만의 핵심 원료 ECM을 바탕으로 탄생한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콜라겐 마스크팩의 원조 '페이셜 더멀케어 마스크'를 개발한 더멀매트릭스의 스토리를 들어본다.

더멀매트릭스는 근본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홈 에스테틱 스킨케어 브랜드다. 생체 소재 전문 연구원 출신의 김태운 대표가 화상 치료용 인공 피부 소재를 개발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스크팩을 출시하면서 더멀매트릭스를 창업했다. 특히 가장 처음 출시한 '페이셜 더멀케어 마스크'는 최근 몇 년간 에스테틱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 팩의 원조다. 대부분의 마스크팩은 20분 이내의 짧은 시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보습 효과를 주는 형태라면, 더멀매트릭스의 페이셜 더멀케어 마스크는 피부에 수분이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부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잠잘 때 붙이고 자면 다음 날 촉촉하고 광나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수면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시장에 수많은 유사 제품이 나와 있지만 더멀매트릭스의 제품을

한 번 사용하면 그 차이를 크게 느껴 꼭 다시 구매하게 된다는 뷰티템으로도 유명하다.

"타 회사에서 제품 유형은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보습을 위해 개발된 더멀매트릭스만의 핵심원료인 ECM(Extra-Cellular Matrix)은 절대 카피할 수 없습니다. ECM 시트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다당류 등 실제 피부의 구성 성분이 함유되어 진피층의 수분 균형을 바로잡고 피부 세포의 정상적인 생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ECM 성분의 수분 전달 제어 기술이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하여 세포를 위한 안정적인 보습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제품력이 좋아 입소문을 타고 지금에 이르렀지만 브랜드가 생소하고 일반 마스크팩에 비해 가격이 높아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찾던 2012년 당시에는 마스크팩을 잠자는 내내 붙이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에 소비자들이 의문을 품었고 최상의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 제조 단가가 높았다. 연구원 출신이 사업을 하다 보니 마케팅에도 서툴렀다. 미리 만들어 놓은 마스크팩의 상당 부분을 폐기할 정도로 판로를 찾기 힘들

었지만 제품력이 있기에 돌파구가 생겼다. 우연한 기회에 LA행 대형 항공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판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10시간 넘게 기내에서 서서 일하다가 현지에 도착하면 너무 피곤해서 붙였다 떼고 자야 하는 마스크팩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듣고 붙이고 잘 수 있는 더멀매트릭스의 마스크팩을 나눠준 것이다.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다음날 화장이 너무 잘 먹는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항공 승무원 및 가족들이 찾기 시작했고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공동구매를 하면서 더욱 많은 소비자가 믿고 쓰는 뷰티템이 되었다. 이런 제품력을 바탕으로 올해 1월, 프리미엄 마스크팩 부문에서 우수한 만족도로 베트남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더멀매트릭스의 제품이 여섯 가지 정도 출시되었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신제품 라인이 나올 예정인데요, 앞으로 소비

자들에게 더멀매트릭스 브랜드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이현수 지점장은 "더멀매트릭스는 피부 재생을 연구하는 개발자 출신의 CEO가 창업한 뷰티케어 기업으로 오직 제품력 하나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며 "앞으로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더불어 "창업 때부터 인연을 맺은 더멀매트릭스의 발전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서포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멀매트릭스(주) 김태운·김주영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이현수 지점장

더멀매트릭스(주) 김태운·김주영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제품의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2.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라.
3.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말라.

더멀매트릭스(주)

대 표 김태운·김주영
전 화 070-4115-7665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9층
홈페이지 https://www.dermallmatrix.com/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IBK기업은행 부평동지점 거래고객

(주)두원알앤에이 박진규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두원알앤에이는 냉동공조기기 제조 및 부품 판매 기업이다.
창업 이후 20여 년 동안 독보적인 기술력과 고객 맞춤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항상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원알앤에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두원알앤에이는 냉동·냉장·공조에 필요한 부품을 판매하고 냉동 유닛을 직접 설계·제작·설비하는 기업이다. 2002년 두원테크로 시작하며 2008년 두원알앤에이로 법인 설립한 이후 20여 년 동안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냉동기 및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냉동 설비뿐 아니라 공조설비 외 공기와 물, 냉각시설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냉동기 부품을 취급한다. 특히 비표준 설계 제품이더라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사양을 맞춰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 위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던 박진규 대표는 냉동 부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2002년 두원알앤에이를 창업했다. 초기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파트너

기업인 덴마크 '댄포스(Danfoss)'의 한국대리점으로 시작하여 주로 냉동공조기 및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였으나 이후 직접 제조에 뛰어들면서 회사를 확장하였다.

오랫동안 주로 유통에만 힘쓰던 두원알앤에이가 제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진규 대표의 배움을 향한 열정 덕분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했지만 훗날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갔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두원알앤에이는 박진규 대표의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제작, 설비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작년에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냉동공조기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냉동공조 성능 검사 실험실'을 개소하였다. 실험실은 단순히 회사 내의 제품을 검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 우수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박진규 대표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실습과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회사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쌀을 기부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려웠던 유년 시절을 극복하고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박진규 대표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 초기에 명함에 빨간 글씨로 '24시간 대기'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고객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갔다. 일례로, 어느 날 영도 태종대에서 밤 10시경 식사 중에 전화가 왔는데 냉동 창고에 소고기가 녹고 있다며 모세관이라는 3M에 1,500원 하는 자제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고객의 말을 듣고 당장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가서 부품을 공급해 준 일이 있었다. 이처럼 항상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두원알앤에이가 있을 수 있었다.

"현재 냉동기 유통과 제조를 같이 하고 있지만 기술 영업이 최선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로 인해 환경오염이 낮은 냉매 가스가 개발되고 그 냉매를 사용하도록 규제가 되는 등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업체에 소개하고 기술을 전달하는 중추적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IBK기업은행 부평동지점 김순제

지점장은 “사업 시작 초기에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며 거래를 이어오고 있는 두원알앤에이는 사옥을 건립하고 김해 공장을 준공하는 등 회사를 확장할 때마다 IBK기업은행과 함께하고 있다”며 “현재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성능 실험 전문 설비 시설을 갖춘 2공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성장을 함께해 온 IBK기업은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원알앤에이의 발전을 서포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부평동지점 김순제 지점장(왼쪽)과 (주)두원알앤에이 박진규 대표

(주)두원알앤에이 박진규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배움을 멈추지 말라.
2. 고객을 감동시켜라.
3. 지역사회에 봉사하라.

(주)두원알앤에이

대 표 박진규
전 화 051-242-8040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서김해산단안길 133
홈페이지 https://www.dwrna.com/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81 내 마음속 영원한 반장

89 사람을 찾습니다

96 나의 첫 과외 선생님

여자는 모른다

103 언젠가는

107 침묵의 시간

일러스트 | **조신애**

사랑 사랑 사랑

내 마음속 영원한 반장

애청자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학원, 게임기, 휴대폰이 웬 말입니까. 자연과 낭만과 야만의 시대 그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은 방과 후 골목마다 모여 말타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각종 놀이를 섭렵했고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소꿉놀이를 좋아했어요.

"얼레리꼴레리~ 얼레리꼴레리~ 혜진이랑 지훈이가 뽀뽀했대요~ 뽀뽀했대요~"

"야! 뽀뽀한 거 아니거든? 하는 척만 한 거거든? 그리고 너희가 소꿉놀이할 때 진짜처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너희 혜진이한테 왜 그래? 혜진이는 소중한 내 각시라고! 부러우면 너도 명숙이랑 뽀뽀해라, 뭐!"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훈이의 '각시' 역할을 도맡았지요.

"쳇, 내가 언제 명숙이랑 뽀뽀하고 싶대. 너희 둘 누가 보면 진짜 부부인 줄 알겠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소꿉놀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져진 지훈이와의 우정은 그 누구도 깨지 못할 만큼 견고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훈이 좋아하지? 엊그제 명숙이가 너희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걸 봤대."

"참나! 좋아하긴 뭘 좋아해. 그냥 쿵 하면 짝 하는 사이지."

"에이~ 초1 때부터 지금까지 5년을 붙어 다녔는데도? 나한테만 말해봐."

둘도 없는 단짝친구. 겨울바람이 춥다고 하면 호~ 입김 불어 손을 녹여주는 사이. 둘이 진짜 사귀는 사이일 거라던 친구들의 추측이 사실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지훈이가 제 남자친구는 아니었어도 오랜 첫사랑은 맞았거든요. '제임스 딘'을 닮은 서구적인 외모에 또래 친구들과 달리 점잖은 성격. 지훈이는 모든 게 완벽한 친구였어요. 문제는 너무 완벽해서 제대로 고백해 볼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였죠.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지훈이와 제가 같은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자~ 조용! 오늘 학급 회의에서는 반장을 뽑을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을 잘 이끌어줄 모범이 되는 친구를 뽑는다고 생각하고 먼저 추천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손 들고 이름과 함께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손을 들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이름을 하나씩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지훈을 추천합니다. 지훈이는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또

5학년 때도 반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지훈이는 자연스레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그래 김지훈. 또 추천할 사람? 없으면 선생님이 나눠준 쪽지에 마음에 드는 후보 이름을 적고 앞으로 전달하세요."

칠판에 적혀있는 서너 명의 이름. 아이들은 수군수군 서로 등을 콕 찌르면서 "너 누구 뽑을 거야?" "너는?" "나는 당연히 지훈이지." 하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조용! 선생님이 쪽지를 펴서 천천히 이름을 말할 테니까, 그래 혜진이가 나와서 칠판에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요? 네~"

"자, 어디 보자. 김지훈 김일중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선생님이 쪽지를 하나씩 펼치실 때마다 지훈이의 이름 옆에는 '바를 정(正)' 자가 쌓여갔고 모두의 예상대로 지훈이가 반장에 당선!

하교 길에 어릴 적부터 소꿉놀이를 함께한 동네 아이들은 한데 모여 지훈이를 축하해주었습니다.

"고마워. 뭐 별거라고. 다 너희 덕분이야."

와중에 겸손하기까지 한 그의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훈이가 반장이 되면서 제게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저를 '그 까무잡잡한 혜진이?'가 아닌 12반 반장의 비공식 여자친구, 지훈이의 '하나뿐인 그녀'로 알아봐 주는 것은 물론 "혜진아, 지훈이 어딨어? 선생님이 12반 전달 사항 있다고 지훈이 교무실에 내려오라는데?" 다른 반 아이들은 꼭 저에게 찾아와 지훈이의 행방을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어

깨가 으쓱거렸죠.

그런데 6학년 1학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지훈이와 저를 주축으로 한 6학년 12반의 판도가 크게 흔들리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합죽이가 됩시다, 합!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김영심, 간단하게 인사하고 저기 1분단 끝자리에 앉으면 돼."

그날 저는 그렇게 하얀 얼굴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여자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안녕? 나는 영심이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자."

예쁜 단화를 신고 나타난 전학생 영심이. 우리는 단번에 그 애가 서울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와~ 맛있겠다. 이거 소시지 아냐?"

"응. 엄마가 매일 해주셔."

"대박. 영심아, 너희 집 부자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빠가 주유소를 하시거든."

그 시절에 주유소를 한다니 얼마나 부잣집 딸이었겠어요. 딱 봐도 귀티가 좔좔 흐르는 영심이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계란말이에 분홍색 소시지, 콩자반, 멸치볶음이 담긴 도시락을 싸 왔고 저와 지훈이는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 날이 많아 그 맛있는 냄새를 뒤로하고 재빠르게 집에 다녀와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다는 걸, 아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이 가난했다는 걸 심지어 그 멋진 지훈이도 영심이와 같은 세계의 사람이 될 순 없다는 걸 깨닫게 된 날이었죠.

처음에는 영심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자기 집이 잘산다는 걸 숨기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영심이의

'우리 집 자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혜진아, 이거 가질래? 우리 집에는 몇 개 더 있어서. 이 연필 갖고 싶어 했잖아."

"아, 괜찮아. 난 됐어."

은근히 가진 걸 뽐내는 모습이 썩 좋게 보이진 않았는데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훈아, 영심이 말야 오늘따라 얼굴이 더 하얗지 않아? 좀 이상한데?"

"그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아냐. 잘 봐봐. 애가 표정도 안 좋고."

바로 그때 갑자기 꺄악~ 하는 소리와 함께 후욱 더운 냄새가 풍겼고. 점심시간에 먹은 도시락이 소화가 안 됐는지 영심이가 갑자기 토를 해버린 게 아니겠어요. 옆에 앉아 있던 영심이의 짝꿍은 그걸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옷에 토사물을 잔뜩 묻혀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날 처음으로 영심이 기가 팍 죽어서 당분간 조용해지나 했는데.

"네가 숙희니? 우리 영심이가 어제 토를 해서 여러모로 불편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건 작은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바로 그다음 날 영심이 엄마가 교실로 찾아와서는 영심이 짝꿍에게 24색 크레파스를 내미는 겁니다.

"지훈아, 이래도 되는 거야? 학부모가 교실에 막 들어와서 한 명한테만 선물 챙겨주고, 이런 게 어딨어?"

"그러게. 근데 아까 복도에서 보니까 선생님도 영심이 어머님이랑 인사하고 계시던데."

"참나! 완전 밥맛이다!"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교실 뒷문으로 우리 반을 들여다보고 가시

던 영심이 어머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차려야 했는데 그 시절의 저희는 너무 순수하고 순진했었죠.

여름방학을 지나 어느덧 2학기가 되었습니다. 2학기가 된 이후로 첫 학급 회의가 열리는 날. 아이들은 다시 반장을 뽑을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올라 얌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교시가 시작되자 드르륵 앞문이 열리고 모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이내 청천벽력 같은 말이 떨어졌습니다.

"크흠~ 이번 학기에는 반장을 따로 투표하지 않고 선생님이 직접 뽑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영심이! 영심이가 반장을 맡게 되었으니 다들 잘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반 아이들은 모두 잠에서 막 깬 것처럼 한동안 눈을 껌벅거렸죠. 그리고 몇 초 후 점점 상황 파악이 되면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저는 당장이라도 손을 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숫기가 없어 황당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슬쩍 옆을 보니 지훈이도 내심 2학기 반장까지 도맡아 하게 될 거라 기대했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더라고요.

"다들 잘 부탁해. 비품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바로 채워둘 수 있어."

묘한 분위기에서 떨떠름하게 나온 박수 소리. 지훈이는 그때까지도 '내가 왜 반장 자리를 뺏겨야 해?' 하는 표정으로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네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삼남매를 키우고 계셨어요. 그러니 바깥일에 치여 선생님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가 없으셨겠죠. 그렇게 '엄마 파워'로 반장이 된 영심이는 조금씩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친구들에게만 좋은 준비물을 몰아주고 저와 지훈이를 노골적으로 따돌리기 시작

했어요.

"영심이 따라다니는 애들은 뭐야? 지들이 무슨 하인이야? 진짜 재수 없어!"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영심이를 따라다니며 붕어빵과 건빵을 얻어먹는 친구들이 가끔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영심이와 가까워지는 게 꼭 지훈이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반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훈이의 옆에 꼭 붙어서 '소꿉놀이' 친구, '비공식 여자친구'로서의 의리를 지켜주었죠.

지옥 같았던 6학년 2학기도 끝이 보이고 저희는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지훈이와 저는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제가 도서위원을 했는데 지훈이는 책을 펴놓고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사서 언니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걔 정성이 대단하더라. 보니까 책은 별로 읽지도 않고 목 빠져라 너만 기다리고 있던데" 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즈음부터였어요. 저희는 이제 추울 때만 손 녹여주는 사이가 아닌 자연스레 '공식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팔짱을 끼곤 했는데. 왜 좋은 시절은 항상 쏜살같이 흘러가는 걸까요. 중학교 졸업식 날 지훈이는 슬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나, 여수로 이사 가. 누나가 시집갔는데 거기서 나랑 엄마랑 동생이 지낼 만한 집을 구해놨다고. 그래서 가야 해."

그렇게 지훈이는 원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고 홀연히 머나먼 여수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 하고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아주 우연히 여수에 살게 되

었어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때 그 시절 '제임스 딘'을 닮았던 지훈이. 행여나 길을 걷다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잠시 기대해 봤는데 신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내 번화가의 신발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지훈이를 닮아서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지나쳤다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혹시 지훈이니?"

제 말에 그는 씩 웃으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는 신발가게를 하고 있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설마 나를 못 잊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큰 키에 살짝 파마를 한 머리. 살도 찌지 않고 예전 그 호리호리한 체형 그대로인 그는 여전히 멋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시내에 나가면 저는 그의 가게에 들러 커피를 얻어 마시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주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소문으로는 지훈이가 큰 사기를 당하고 다른 곳으로 거취를 옮겨 새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벌써 30여 년 전의 일. 이제 칠십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어린 시절 첫사랑은 신발가게에서 멋쩍게 웃던 익숙한 그 얼굴 그 모습으로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지훈이가 반장 선거 때와 같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내고 있길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길 바래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람을 찾습니다

박수봉 | 경기도 고양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73년 11월 말의 어느 겨울 저는 작은 쪽지 하나를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오후 다섯 시 장충동 국립극장 앞'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제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이름 하나뿐이었어요. 박혜원. 친구 녀석이 자기 여자친구의 지인인데 사람이 괜찮더라며 만나보라고 등 떠밀어 나온 약속이었지요.

"정빈아, 나야. 지금 국립극장 앞인데 혜원 씨가 일이 늦게 끝나시나? 아직 안 나오신 것 같네."

"여자친구 말로는 다섯 시에 칼같이 나올 거라던데. 네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눈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아, 저분인가? 싶더라고요. 155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짙은 빨간색 외투를 입은 여자. 그

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쭈뼛쭈뼛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서 계신 거 봤는데 혜원 씨인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는 박수봉이에요."

"네… 저는…."

"…"

"아, 그러니까,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기에 저는 순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 인사했나? 이분이 아닌가?' 고민했어요.

"박혜원이에요. 이미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통성명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긴장이 확 풀어지더군요. 제가 낯을 꽤 가리고 말수가 없는 성격이라 지나치게 활발한 상대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날이 춥지요? 어디 다방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사무실에서 커피 많이 마셨거든요. 걷기만 해도 좋아요. 산책이 건강에 좋잖아요."

당시 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학창시절 내내 반에서 제일 가난한 집 아이로 불렸고 아이들은 제게서 호롱불 석유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기도 했지요.

그러니 다방에 갈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혜원 씨는 친구 녀석을 통해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전해 들었는지 저를 배려해 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첫 만남부터 장충동 골목골목을 누비며 대화를

나눴지요.

"혜원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저보다 동생이라고만 들어서요."

"수봉 씨가 스물둘 맞으시죠? 제가 두 살 더 늦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신 거네요? 멋지세요."

"아니에요. 뭘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요."

동네를 한 시간이나 걸었건만 부끄럼 많고 말수 없는 그녀의 성격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어요.

"수봉 씨, 이제 들어가세요. 오늘 친오빠가 일찍 집에 오는 날이라 미리 저녁을 해둬야 하거든요."

새로 알게 된 것이라고는 그녀가 스무 살이고 일을 일찍 시작했으며 이촌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지요. 그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녀에게 친오빠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니 그래도 나름대로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먼저 버스에 태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제야 배가 고파오면서 싱숭생숭 묘한 기분에 젖어 들어갔지요.

"혜원 씨, 접니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혜원 씨, 오늘도 다섯 시에 마치시나요? 제가 거기로 갈게요."

"네, 여기로요. 좋아요."

"저, 오늘도 갑니다. 오늘은 제가 과제 모임이 있어서 종로서적에서 책 구경하고 계시면 제가 여섯 시까지 앞으로 갈게요."

"여섯 시에 종로서적. 네~ 천천히 조심해서 오셔요."

그 시절엔 따로 고백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레 연인이 되는 일이 많

았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단번에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가까워져서 어느덧 네 번째 만남이 되었고 사람이 없는 길목에서는 몰래 손도 잡는 사이가 되었지요.

"엄청 춥네요. 크리스마스트리도 추워 보여요. 이제 12월도 다 지났으니 트리를 정리할 때도 됐는데."

"혜원 씨, 오늘은 저녁 먹고 갈래요? 저기 중국집 어때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동안 저녁 한 끼 못 사준 건 물론이고 그 한파에 산책 데이트만 해왔으니 그녀를 볼 낯이 없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주머니에 차비를 하고도 남을 약간의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자장면 두 그릇은 족히 먹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저는 성큼성큼 종로서적 맞은편 골목의 허름한 중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어~ 두 명? 저기, 안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볼이 발그레한 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 사이라는 걸 눈치채셨는지 사장님께서는 저희를 구석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자장 두 그릇? 선불이니까 먼저 결제부터."

그녀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계산하고 잠시 겉옷을 벗어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수봉 씨 얼른 드세요. 잘 먹을게요." 벌써 나와 있는 따끈한 자장면.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하는데 한 손에는 휴지를 쥐고 틈이 날 때마다 입가를 닦는 그녀의 앳된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자꾸만 그녀가 제 눈치를 살피는 기분. 제 눈치가 틀린 건 아니었는지 그녀는 제가 마지막 젓가락질을 다 하기도 전에 "저, 오늘은 얼른 집에 가봐야 해요" 하면서 서두르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지만 하도 안절부절못하는 눈치길래 얼

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었지요.

"갈게요. 서둘러서 미안해요.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그렇게 돌아온 상계동 판잣집. 겉옷에 중국집 기름 냄새가 뱄을까 싶어 바깥에 거풍을 해두려고 옷을 정리하는데 "이게 뭐지?" 순간 주머니에 부스럭 소리가 나면서 무언가 두툼한 게 잡히는 겁니다. 서둘러 꺼내 보니 두꺼운 하얀 봉투가 보이더군요. 안을 들여다보니 꽤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제 형편을 알아차린 그녀가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간 사이 돈봉투를 저 몰래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지요. 마침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책값이 절실했던 저는 그 봉투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습니다.

그렇게 덕을 봤으니 사람이라면 바로 은혜를 갚는 게 맞았겠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겨우 네 번째였던 그날의 만남 뒤에 바로 해가 바뀌었고 제 앞으로 군대 영장이 나오면서 혜원 씨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기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부대끼다 보니 그녀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게 제 평생의 후회가 되리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러 2002년 8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너무 덥다. 나무들도 더워서 축 늘어진 것처럼 생겼어.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어느 날 큰 딸아이가 길을 걷다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문득 혜원 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추워 보인다며 나무를 걱정하던 착한 심성. 순

간 그녀에게서 도움을 받은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고 저는 바로 그녀가 다녔던 직장에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저는 박수봉이라고 하구요. 사람을 한 명 찾고 있어서요."

운이 좋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변 과장님은 마침 그녀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시더니 "네, 기억합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럴 분이시지요.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제게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네요. 저도 수소문해 보고 근황이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나중에 꼭 찾아뵐 테니 저를 만나 달라 부탁을 드린 뒤 전화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나니 어느덧 2010년. 그해 아내와 사별하게 되면서 인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직도 갚지 못한 혜원 씨에게 진 빚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가 다녔던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긴 글을 남긴 뒤 상담을 예약했고 방문 승인을 받아 민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갚으려는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시곤 캐비닛에서 사원 기록부를 가져와 주셨어요.

이제 그녀와 연락이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담당자분께서 잠시 창밖을 내다보더니 "더 이상의 협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시더군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요. 대신 2002년에 통화하셨다는 변 과장님 연락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시거든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변 과장님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 부탁드렸고 변 과장님께서는 당시 혜원 씨의 봉급이 제가 받은 돈과 딱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저는 바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시 민원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연락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돈이라도 대신 전달해 주세요. 저보다는 회사 측에서 혜원 씨를 찾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돌려진 돈봉투. 영영 빚을 못 갚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속이 뭉그러지더군요.

여러 방편을 찾아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시기에 변 과장님이 별세하시고 제가 아는 연이 모두 끊어졌으니 이제 정말 방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후회됩니다. 군인이 되어서는 서신 검열이 엄했던 것은 물론이고 부대 내에 제약이 많아서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내심 속 편한 핑계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이에 한 달 봉급이 사라지면 그 여파가 한두 달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녀가 저를 만난 네 번의 약속 동안 늘 같은 옷차림을 했던 걸 떠올려보면 그녀도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은 늘 그랬어요. 동료 사이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직원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변 과장님이 남기고 가신 이야기를 떠올려보며 박혜원 씨를 간절히 찾아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나의 첫 과외 선생님

애청자

1999년 겨울. 당시 저는 중학교 3학년 철부지 학생이었고 주특기로는 '어머니 저금통 빼돌려서 놀러 다니기' 장기로는 '그걸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가 있었지요. 돌이켜보면 저는 공부 빼고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게임에 소질이 꽤 있었달까요.

친구끼리 재미로 하는 '판치기'도 제가 끼면 백전백승. 거기에 '보글보글' '철권' 등 오락실 게임은 어찌나 잘하는지 단돈 100원만 있으면 반나절을 버틸 수 있었죠.

"됐거든요. 나 이제 고등학교 공부 준비해야 한다고 엄마가 독서실 끊어주셨거든? 앞으로 오락실은 주말만이야."

"에에? 이렇게 배신하기 있기냐? 혼자 하면 재미없단 말이야."

그해 겨울부터 저의 소중한 '오락실 메이트'들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자던 약속은 나만 진심이었던 거

니? 배신감에 얼룩진 표정으로 친구를 붙잡으려던 찰나! 갑자기 탁하는 소리와 함께 눈에서 별이 번쩍! 뒤통수가 화끈거렸습니다.

"김유준! 너 또 여기서 죽치고 있었지? 이 자식이 당장 안 일어나?"

"엄마, 야채가게 아줌마랑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니 철권 하는 소리가 저기 야채가게는 물론이고 온 시장통에 다 들린다. 왜!"

저는 어머니에게 귀를 잡힌 채 집으로 질질 끌려갔고 그 후로는 뭐 다들 예상이 되시죠? 어머니는 대체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며 곡소리를 쏟아내셨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의 장판 무늬를 분석하고 있는데 "됐고! 너 이만큼 놀았으면 됐지? 이제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수학 과외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제가 무슨 과외예요!"

"야채가게 아줌마네 둘째 딸 지혜 있잖아. 걔가 이번에 연대에 합격했단다. 내년 1학기 때까지만 너 맡아달라고 내가 사정을 했어. 막말로 너 수학 점수가 그게 뭐니? 네가 지금 뭘 가릴 때야?"

"엄마, 저 돌머리인 거 몰라요?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다 모르겠고 누굴 붙여놔도 안 된다니까. 아 싫어~ 절대 싫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이기겠습니까. 중3 기말 성적표에 수학 점수 50점이 떡 하니 찍혔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불편한 과외를 받게 되었고 어머니의 저금통도 제가 모르는 어딘가로 새로 숨겨졌지요.

일주일이 흘러 첫 과외 수업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 저는 수학의 정석을 펼쳐놓고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아~ 선생님 왔다~"

사실 너무 겁이 났어요. 저보다 세 살 많은 지혜 누나는 예전에 오가며 잠깐 얼굴만 봤던 사이였거든요. 게다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누나는 늘 책을 끼고 살던 전형적인 범생이로 살가운 성격도 아니라서 저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공부를 배우는 게 더 싫었나 봐요. 제가 얼마나 바닥인지 그 치부가 드러나고, 그게 우리 어머니와 야채가게 아줌마에게 공유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준이, 안녕? 오랜만이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지혜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살을 쫙 빼고 머리도 매직으로 예쁘게 핀 데다가 렌즈를 끼고 화장까지 했더라고요. 거기에 고급스러운 핸드크림 냄새도 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안녕하세요?"

"책은 준비해 왔지? 잘했네.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겁먹지 말고 예전에 풀던 문제집 있으면 좀 보여줄래?"

예상보다 더 상냥한 누나의 모습에 제 마음은 사르르 풀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홀린 듯 구석에 처박아두었던 지난 학기의 수학 문제집들을 꺼내 들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것과 다름없는 책들을 보며 점점 굳어가는 누나의 표정과 누나의 뒤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열정의 불꽃을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아들아, 사람의 첫인상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지요. 사람의 첫인상은 정말 찰나의 각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야! 내가 뭐랬어? 우리 1차 목표가 뭐라고?"

"수학 점수 무조건 80점대로 올리는 거요."

"똑바로 말 안 해?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3개월 안에 80점대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지? 근데 이따위로 할래?"

저는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 다음으로 그렇게 무서운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누나는 영 수학머리 없는 제가 답답했는지 점점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갔어요.

"이거 다시 봐봐. 뭐 이상한 거 없어? 답이 진짜 마이너스 2야?"

"어, 플러스 2? 아닌가? 마이너스 2 맞을걸요?"

"야! 답이 두 개잖아. 플마 2잖아. 확신도 없으면서 검토를 왜 안 해?"

어느 날은 제가 연달아서 숙제를 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 내가 숙제 한 번 안 해오는 걸로는 뭐라 안 해. 근데 두 번 연속은 성실함 문제라고 했어 안 했어? 손바닥 대. 딱 스무 대로 퉁쳐."

설마 진짜 스무 대를 때릴까 했는데 누나는 30센티 자를 들고서는 탁탁탁탁탁! 빠르고 정확하게 스무 대를 때렸고 그날 이후 저는 누나와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습니다.

계산 검토도 열심히 풀이 과정도 꼼꼼히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만큼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해내갔지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첫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머머머 준아, 너무 잘했다. 과외시킨 보람이 있네, 있어.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내 강아지~"

엄마가 기뻐하셨습니다.

누나는 약속대로 딱 3개월 만에 50점대였던 제 수학 점수를 80점까지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가 누나와의 수업 시

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늘 아버지와 저에게 불호령을 내리는 어머니를 보며 불같은 성격의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했던 저인데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전진하고 강인하게 이끌어주는 누나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만 것입니다. 역시 저는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나 봐요.

"준아, 이제 과외 없어도 혼자 수학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 힘들면 그만해도 돼.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죠. 혼자서는 집중이 안 되니까 절대 끊지 마세요."

봄바람이 부는 5월 저는 저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바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누나는 처음 시작한 대학 생활에 잔뜩 들떴는지 입가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죠.

"유준아, 문제가 좀 어렵니? 오늘따라 속도가 더디네. 지금 아홉 시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건 숙제로 풀어올래?"

"왜요? 뒤에 약속 있으세요?"

"어어~ 우리 과 선배랑 술 약속이 있어서."

"이 시간에요? 술 먹고 집 가면 열두 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걱정은 말고 기말 시험 걱정이나 하셔."

좋아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나니 점점 누나의 사생활이 궁금해졌고 누나가 남자 선배들과 만나는 날에는 질투도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공부뿐! 당장은 누나도 저를 꼬맹이로 볼 테니 어쩌겠습니까. 꾸준히 성적을 올려서 누나와 같은 대학에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오~ 요즘 타율이 좋다. 가르치는 보람이 있네. 오늘은 따로 오답 설명 안 해줘도 되겠는데."

"진짜요? 그럼 10분만 쉬면서 대학 얘기 좀 해주세요. 누나, 새내기 때는 막 과팅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과팅? 그치. 많이 하지. 근데 그냥 그래. 별로 재미없어."

그래도 학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성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누나 덕분에 조금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이대로 3년만 더 버티면 누나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끊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했을 텐데 그날은 누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안절부절못하는 표정, 뭔가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는 듯 눈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누나, 전화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급한 전환가 봐요."

"그래도 될까? 그럼 잠깐만~"

"네 여보세요~"

저는 누나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대할 때와는 다르게 옥구슬이 흐르는 것 같은 상냥한 말투. 게다가 아! 그제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누나가 들고 있는 휴대폰 뒷면에 붙어있는 스티커 사진을요.

"으응~ 내가 아직 수업 중이거든. 끝나고 문자할게. 응~ 어, 미안 미안~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누나 이 사람 누구예요?"

'제발 그냥 친구라고 해라. 친한 남사친이라고 해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사람의 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어어~ 내 남자친구. 사귄 지 2주 됐어. 잘생겼지?"

"아니요."

"응? 뭐라고?"

"별로 안 잘생겼는데요."

"이 자식이! 야! 얼른 문제 마저 풀어."

그날 이후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저를 3년 늦게 낳아주신 어머니를 그리 잘생기지도 않은 남자 동기에게 홀딱 반해버린 누나를 원망했지요.

고백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깨진 첫사랑의 아픔은 오래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금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과외 시간 중간 중간 남자친구에게 도착한 문자를 보며 미소 짓는 누나를 보니 저는 정말 누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그해 10월 누나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며 과외를 그만두었고 이렇게 제 인생 첫 짝사랑은 종료되었습니다.

벌써 25년이 흐른 일인데도 수능이 끝나고 대학 합격 발표 소식이 나오는 겨울철이면 그때 생각이 나네요.

누나, 잘살고 있지? 나도 좋은 사람 만나 잘살고 있는데 나 그때 누나 진짜 좋아했다!

여자는 모른다

언젠가는

애청자

도심에 사는 나는 언제나 숲이 우거진 농촌을 꿈꾸며 살아간다. 딱딱하고 거친 회색 도시보다는 숲이 우거진 녹색 푸르름이 그립다. 산새가 지저귀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집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싶다. 그래서 오늘도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 저기 어디 인적 드문 농촌으로 이사 갈래?"

"또 또 그 소리다. 당신은 뉴스도 안 봐? 농촌은 지금 사람들이 죄다 도시로 빠져나가서 소멸되고 있다잖아. 근데 당신은 그냥 농촌도 아니고 인적이 드문 농촌까지 찾아서 이사를 가자고? 당신 농촌에서 안 살아봤지?"

"아니야. 나 어렸을 때 함양에서 나고 자랐어. 그러다 서울 온 거야."

"그래? 몇 살까지 살다 왔는데?"

"아기 때."

"그러니까 몇 살?"

"한 살."

"뭐? 한 살? 지금 장난해? 당신 거기 살면 그 좋아하는 커피도 사기 힘들고 친구들도 자주 못 봐. 그리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큰 병원도 없어서 고생한다고."

나는 아내의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또 조금 다르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산다면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가 지금보단 덜 할 거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쉬다 보면 힐링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곳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한다면 병원 갈 일은 크게 없을 거고 커피야 내가 집에서 만들어 마시면 될 일. 친구들도 주말이면 어디 놀러 갈 때 없냐고 매번 물어보는데 내가 사는 시골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면 나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을 아내에게 주저리주저리 표현하진 않았다. 아내는 아직 도심이 익숙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은 상상만 해도 거부감이 든다는데 그런 아내에게 나의 욕심만 주장해 봤자 반감만 살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요즘 꼼수 아닌 꼼수를 쓰고 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도심 외곽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것이다.

"어때? 창문 열어봐 시원하지?"

"그러네. 저기 단풍 진 거 봐. 이쁘다."

"저건 또 뭐야?"

"백로 같은데 엄청 크다."

학처럼 목이 긴 새가 어슬렁거리며 긴 목을 물줄기 안에 쑤셔 넣고 있다.

"신기하다. 집에서 2시간 채 안 나온 거 같은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담엔 애들도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래!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이 얼마나 좋다고."

아내가 조금씩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에 스며들고 있었다. 산 중턱 경치 좋은 곳에 있는 펜션을 예약한 나는 여왕님과의 만찬을 준비하듯 부지런히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다.

"아 맞다. 쌈 채소는 안 샀는데 어떡하지?"

"참내. 여기 널린 게 채손데 뭔 걱정이야. 저기 봐봐. 깻잎이며 상추에 고추까지 없는 게 없어."

"아, 그러네. 근데 저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펜션 주인분께서 맘껏 먹어도 된다고 했어."

아내는 이내 텃밭으로 가서 조심스레 채소를 수확해 본다.

"어머 여보~ 이거 봐. 정말 신선하다!"

나의 입가엔 미소가 번진다.

'흐흐흐 좋았어~ 아내가 빠져들고 있군. 이제 멀지 않았어. 우리의 귀농생활.'

다음 날 아침 창을 여니 눈부신 햇살이 침대 머리맡으로 비스듬히 들어온다. 푹 잠이 들었던 아내는 평화로운 새소리에 살며시 눈을 뜬다. 그리곤 맑은 공기에 정신이 뻔쩍 드는지 두 팔을 벌리며 기지개를 켠다.

"아~ 공기 좋다. 상쾌한데?"

"어때 푹 잤지? 자 여기 커피. 내가 직접 탔어. 마셔봐."

"오~ 당신 어제부터 서비스 좋은데. 왜 그래? 안 어울리게."

나는 그냥 사람 좋게 웃는다. 내가 건넨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툇마루 앞에 자리 잡고 앉은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다.

"여기 좋다."

앗싸! 내가 원하던 답이 드디어 아내에게서 나왔다.

"그치 좋지? 봐봐. 이렇게 좋다니까. 잘 생각해 봐. 도심에선 절대 이런 사치를 못 누려요."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리곤 나지막이 말한다.

"훗~ 당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좋으면 당신 먼저 귀농해서 살아봐. 그럼 내가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놀러 올게."

아, 내가 성급했구나! 조금만 더 스며들게 했어야 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아내와 즐거운 여행을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 하루였다. 언젠가는 나도 귀농할 수 있겠지?

여자는 모른다

침묵의 시간

애청자

저는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듣고 있으면 짜릿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는 티키타카라고 하죠. 쉴 새 없이 오가는 수다 속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기본 세 시간 술 없이 카페를 3차까지 다니며 쉬지 않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목 안 아프냐?"

"그러게 너 이러다 성대결절 오겠다야."

"얘가 무슨 가수도 아닌데 수다 떨다 성대결절 오면 그것도 진짜 웃기겠다."

타고난 수다남! 심장 뛰는 시간보다 입 터는 시간이 더 많은 제가 유일하게 급격히 말수가 줄어드는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어릴 땐 아빠와도 애기를 많이 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어색하고 불편해졌던 거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와 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도 아버지와의 대화는 뭔가 초조하고 막막합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제 얘기 많이들 공감하실걸요.

저는 부모님 댁에 갈 때면 꼭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엄마가 집에 계신 지 확인하려고요. 그래야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도착해서는 엄마와 폭풍 수다를 떨면서 몸과 마음을 풀고 아버지가 티브이를 보고 계신 소파로 슬슬 자리 이동을 합니다.

"왔냐?"

"네, 별일 없으시죠?"

"그래~ 넌 요즘 일은 할만하고?"

"네, 할만합니다."

"그래~"

대화 끝. 참 간단명료하죠.

근데 전 아버지 얼굴에서 그 표정을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티브이를 보고 있지만 실은 되게 어색해서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나오는 그 초조한 표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부자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몸살감기에 걸린 날.

"여보세요."

"응, 몸은 좀 어때? 아빠가 너 병원 다녀왔냐고 물어보래."

"지금 기운이 없어서 병원 갈 힘이 없어. 그래도 약은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순간 옆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군요. 제가 하는 말을

같이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동시통역사처럼 아빠가 하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빠가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지 빨리 낫는다고. 기운 없어도 빨리 병원 가보래."

"알겠어. 근데 오늘 아버지 등산 가시는 날 아냐?"

"안 그래도 지금 등산 갈 준비하고 계셔."

"날씨 추우니까 내복 입으시고 물도 충분히 챙겨 가시라 그래."

"아빠가 외투 여러 벌 챙겼대. 물도 3병 챙기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래."

"아빠 요즘 술 많이 안 드신대."

이렇게 저희 부자는 엄마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안부를 전하는 사이랍니다.

지난 명절 땐 아버지가 벌초 갈 준비를 하라고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전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가실 거죠? 할아버지 벌초."

그러자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니, 엄마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가."

결국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대전까지 약 두 시간가량을 달리게 됐습니다. 출발한 지 20분쯤 지났을까요. 차 안의 적막함을 깨기 위해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래도 어색함이 가시질 않더군요. 심장 뛰는 시간보다 입 터는 시간이 길어야 살 수 있는 수다맨!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시고 나오신 거예요?"

"먹었다. 넌?"

"전 원래 아침 안 먹어요."

"먹어 버릇해라."

"네."

아버지와의 대화 시도는 이렇게 10초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3시간 정도 '침묵의 벌초'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숨통을 열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고생하셔서 내일 몸살 나시는 거 아니에요?"

"난 내일 쉰다. 출근하는 네가 걱정이지."

"전 괜찮아요.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가는 길에 눈 좀 붙이세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주무시면 제 맘이 더 편할 거 같아서 취침을 권해드렸어요. 내심 아버지는 괜찮다고 사양하실 줄 알았습니다. 운전하는 아들 옆에서 잘 수 없다 뭐 그러실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셨다는 듯 바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보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아버지의 눈꺼풀이요. 왜 아시죠? 억지로 눈감으면 눈꺼풀 떨리는 거. 아버지도 맨정신으로 저와 좁은 차 안에서 침묵 속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부자 사이에 뭐가 그렇게 어색하냐?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이해할 겁니다. 그 이유를 한 글로 다 풀어서 말할 순 없지만 그냥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제가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 많이 사랑하시죠?"

편 가르기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즘 들어서 나는 부쩍 서랍 정리를 한다. 심란할수록 여기저기 정리를 해대는 예전 버릇이 도졌다. 내복 서랍, 집에서만 입는 제일 편한 옷들, 무대의상, 스카프, 액세서리, 양말, 문방구들(필기도구랑 노트), 엄마 서랍 속 버리지 못하는 엄마의 옷과 모자, 소품들 등등. 눈길 가는 데마다 정리할 것이 많아 심심하진 않다. 일거리가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큰길 건너 뒷골목에는 방송국의 외주를 받아 일을 하는 프로덕션들이 꽤 있다. 더빙도 하고 사무실 겸 스튜디오로 사용되는 곳들이다. 아득한 몇 년 전 그날, SBS <생활의 달인> 내레이션을 마치고 나오는데 늘 그렇듯 1톤짜리 트럭이 서 있고, 짐 싣는 칸에는 정치색 짙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주변에는 나보다 어려 보이는 뽀글이 파마를 한 짙은 화장의 여인네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중 한 여자가 나를 보더니 "양희은 간다, 양희은이다!" 이어서

"양희은 빨갱이 때려잡자, 빨갱이!" 하고 외치더니 다 함께 "양희은 빨갱이다" 합창을 시작했다. 나는 가다가 돌아서서 "내가 빨갱이라고? 뭘 알구나 떠드는 거야? 정신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빌딩 사이 골목길을 뚫고 나갈 만큼 큰소리로 외쳤다. 그네들 눈초리가 이상하게 희번덕거리는 게 기도 안 차 째려보다 돌아섰다. 이튿날 여성시대 팀에게 말했더니 "떼로 덤벼들어 넘어지시면 큰일나요. 다음부턴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큰일 나요"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81년 처음으로 일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여권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나 소양교육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철저한 반공교육을 내 나이 또래들은 다 기억할 것이다.

며칠 후, 일본 오카야마의 친구 집에서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 어머니랑 공중탕으로 목욕하러 갔었다. 거리에 내놓는 쓰레기도 장애인을 위한 소리 나는 신호등도 내겐 생경했고 신기했으며 부럽기도 했다. 친구 어머니는 옆의 한국 아줌마와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셨는데 친구가 "저 아줌마는 조총련이야"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버렸다. '아니 그럼 공산주의자랑 같은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단 말이야?' 내 친구네는 민단이란다. 뿔 달린 도깨비 같은 이상한 상상을 깨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깔깔 웃는데 나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좌파, 우파, 빨갱이.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세상에서 2024년 12월이 지나 새해를 맞고 또 우리의 설이 지났지만 무감각하게 지낸다. 많은 자영업자가 '그래도 살아야지' 하며 힘겹게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이놈의 편 가르기는 도대체 언제나 끝날까.

5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여성시대에서 새해 처음으로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2020년 당시 5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작성했던 청취자분들께 전화를 걸어 그때의 편지를 다시 읽어주고 5년이 지난 현재는 어떠하신지 안부를 물었다. 편지를 쓸 당시에는 각자 내 꿈을 찾는 취업준비생, 가정 내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분들이셨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느낀다. 진짜 우리 피디 작가님들 대단하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재도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꿈, 가족, 건강일 텐데 딱 그 세 가지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전화를 연결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이고 행복한 것은 현재 그분들의 모습이었다. 진로를 고민하던 취업준비생은 현재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중이었고, 홀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던 가장은 새로운 사랑과 함께 더욱더 단단한 가정을 이루셨고, 암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던 분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사의 반가운 이야기를 들으셨다. 특히나 건강을 회복하신 분의 인터뷰 중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있다. "우리 인생에 결코 당연한 것은 없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

나도 5년 후의 나, 2030년의 김일중에게 편지를 써보려 한다.

5년 후면 나도 만 나이 50이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 지천명. 불혹의 나이 사십 대라지만 여기저기 많이 솔깃하고 흔들렸지.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제일 관대했잖아. 50대엔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겐 철저한 기품 있는 중년이길 바라. 2025년엔 그래도 아직 초반이라 헬스장 가서 운동 꾸준히 하고 있는데 5년 후엔 그 결실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반팔 티셔츠에 꽉 찬 팔뚝 알지? 여성시대도 잘 진행하고 있겠지? 여전히 월간 여성시대 글쓰기는 힘드니? 적응될 법도 할 텐데 그 정도 썼으면. 5년 후인데도 아직 10년 차가 아니구나. 브론즈상은 좀 더 기다리자. 아, 그리고 그땐 전기차 타려나. 자율주행도 되는 거야?

우리 집 홍시도 그땐 10살이 되는구나. 그때도 아빠 엄마랑 촐랑거리며 산책 같이 다니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지만 2030년에는 첫째 민준이는 대학 생활 하다가 군대 가있을 시기겠고, 둘째 현준이는 고3 마치고 대학생이 되려 하겠네. 그러니까 홍시야 네가 건강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나들이 가주렴.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여보, 홍시랑 산책도 좋지만 생활체육 하나는 같이 합시다.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등산은 그때도 싫을 거 같아.

우리 두 아들. 초중고 무사히 마치고 대학생이 된 거 축하한다. 20대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신나게 열정적으로 보내는 거야. 운동도 꾸준히 하렴. 그래야 삼사십 대가 편하다. 그리고 이제 아침 차려주는 건 끝이다. 알아서 해라.

끝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문제도 좀 해결이 되기를. 더 악화되지 않기를.

일중아, 5년 후엔 더 길게 쓸 수 있겠지?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사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은행 방문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아갑니다.

새로워진 기업스마트뱅킹

i-ONE 기업

- 인증서 하나로 여러 사업장 동시 관리
- 생체·패턴인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 직관적 UI/UX와 스마트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268호(2024.12.05)유효기간(2025.12.04.)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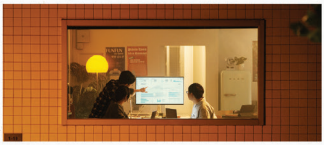
IBK기업은행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지만

그세상을



바꾼 것은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위대한 기업,

그 옆에. IBK기업은행.